

CNI 세미나 2018-030

---

2017년 하반기

## 충남연구원 시민사회 자원 작은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



# 차 례

## 【연구과제】

1. 천안 도솔광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2
2. 공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립적 협동 사회적경제 구축 가능성 연구 / 17
3. '마을은행' 설립과 '마을은행 네트워크' 구상방안 / 73
4. 주치의사업과 주민 건강 지킴을 위한 주치의건강수첩개발 / 86

## 【연구모임】

5. 나와 환경을 살리는 면생리대 / 96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역량 및 만족도 조사 / 108
7. 우리동네 빗물저장소 연구모임 / 117





# 01

[2017 하반기 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성과보고회]

## 천안 도솔광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조 도 영 (충청미래희망연구소)



# 천안 도솔광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필요성)

- 2017년 4월 13일 천안 IC 인근에 대단위 도솔공원을 준공함
- 공원은 현재 대형 도로 속에 섬처럼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어려움
- 개방 후 찾는 사람이 없는 유령 공원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음
- 인근 천안삼거리 공원, 천호지 등 천안의 유명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도솔공원만의 차별화가 없다면 찾아오는 사람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솔공원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2) 연구목적

- 사람이 찾지 않는 도솔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조사
- 인근 천안삼거리, 천호지 등과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 제안
- 타 지역 주민 참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법 제안 및 추정 예산 검토

### 3) 연구 방법

- 현장 방문을 통한 연구 진행
  - 도솔광장 인근 공원 모니터링 및 행사 참여
  - 타 지역 광장 운영 프로그램 조사 : 방문, 문헌 조사 외
- 인터넷, 학회 논문 등을 통한 문헌 조사
  - 국내외 도시 공원 활용 및 차별화 프로그램 사례에
- 운영 주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사용 사례 조사
  - 국내외 문헌 자료를 통한 우수 사례에 대한 진행 방법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솔공원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최근 성공사례로 불리는 도시공원들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도 기존에 지자체 등 관주도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개발 방식과 관리운영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 현재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조성 내 용도의 경우 놀이시설, 체육시설, 조경시설 등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지역의 정체성 제고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원조성에 있어 민간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나아가 도시공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활용도 제고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애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공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사람이 찾지 않는 도솔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조사

- 현대사회에서는 개성을 잃고 지역이미지가 획일화되어 가는 도시에서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생활공간으로 인간 활동의 터전이 되며 도시의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감안한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인근 천안삼거리, 천호지 등과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

- 천안삼거리 : 천안의 대표 축제인 “천안 흥타령 축제”,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기간 사용 빈도가 높은 특징을 가짐
- 천호지 : 인근 단국대학교를 비롯한 대학 밀집 장소, 인근 아파트 주민, 단국대 병원 등 수요층이 많아 연중 사용 인원이 많음. 인근 식당, 커피숍 등도 사용 주민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걷기대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천호지 청소 등 그 이용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공원의 모습을 보임.

○ 타 지역 주민 참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 현재 천안시와 신부동 차원에서 2017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예) 건강 걷기 대회, 천안 예술제,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등



천안 삼거리 야간 전경



천호지 야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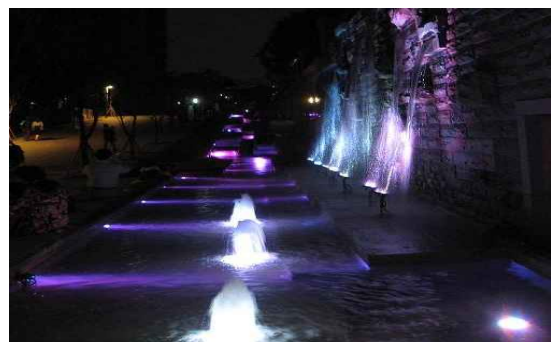
- 하지만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모두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투입 사례로 지역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음.
- 반면 공원 한쪽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사용 주민들의 반응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사용 주민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성은 있음.

#### ○ 국내외 공원 활용 조사

- 공개된 해외 사례는 도솔광장과 연관성이 낮아 제외함
- 민간 아파트 단지 우수 공원 사례 : 서울 반포 자이 아파트



반포 자이 아파트 공원 내 수영장



반포 자이 아파트 공원 내 수로 산책로

- 공공기관 중 서울시 우수 공원 사례



서울역 옆 고가공원 : 세계적 이슈



한강공원 : 청보리 파종 행사&교육 연계



- 공공기관 중 지방 우수 공원 사례
  - : 군산 사례 - 역사공원 이라는 테마와 함께 산책로 변형을 흥미 유발
  - : 제주도 사례 - 재미와 유료로 운영되는 우수 사례



군산시 구암역사공원(2016년 우수사례)



제주도 김녕미로공원 : 재미와 유료 공원

### ○ 운영 주체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사용 사례 조사

- 원활한 운영이 안 되는 상태라 예산 사용 및 그 실태 조사는 어려운 상태임
- 향후 천안시의 재정 투입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예상됨

### 3) 바람직한 공원 운영 방안

- 최근에는 규모가 작더라도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언제든지 녹색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 · 녹지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평공원, 어린이상상공원, 학교숲, 쌈지공원 등을 들 수 있음.



한평공원 사례 1



한평공원 사례 2

- 앞으로 도시공원의 추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다양한 주 제공원의 발전. 법 · 제도 측면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은 열

려져 있는 상황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타시도와는 달리 해안공원, 도시생태공원, 애완동물공원, 산림휴양공원 등으로 도시공원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도시생태공원과 산림휴양공원을 조례에 추가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도 함.

둘째. 도시의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공원과 녹지 연결체계 구축을 들 수 있음.

- 도시공원과 녹지의 연결수단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어 도심의 녹색축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중앙공원을 활용하여 정적이고 수동적인 공원이미지를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변화하는 새로운 공원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음. 더불어 3.5km나 되는 도심의 공원을 인천시의 녹지축으로 삼는데 활용을 하기도 하였음.



### 3. 연구 결과

#### 1) 도솔광장 인근 공원 모니터링 및 행사 참여

- 도솔광장 개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의회 등에서의 문제 지적
- 천안시와 신안동 차원에서의 행사 진행 : 주민 홍보 중심으로 진행됨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하며, 추가 유입 인구는 없는 상태가 지속됨
- 신안동 주관 “작은 음악회” 참석 : 관계자 이외 시민 참여는 극히 극소수임
- 기존 천안시종합운동장(유관순체육관) 야외 스케이트장과 동일한 야외 스케이트장  
‘18년 1월 운영 : 홍보 미비와 지리적 한계점으로 주중 이용객 매우 적음
- 현재 도솔광장의 부대시설 및 행사 등은 인근 천안 삼거리 공원, 천호지 등과 차별성 및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많은 한계성을 가질 것으로 보여짐
- 잔디과장 및 반려견 놀이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경비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  
피한 상태라 시의회 등에 지속적인 운영/관리 지적사항으로 예상됨



9.26(도솔광장 걷기 대회)



2017. 10. 13.(금) - 15.(일)  
도솔광장 (신부동 천안IC앞)

8월~10월 도솔공원 문화공연



2017 천안예술제 중 댄스페스티벌



2018. 1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 2) 현재 도솔공원의 문제점 분석 및 새로운 방법 제시

- : 천안시의원도 향후 투입될 관리비 예산을 걱정하면서도 활성화 때까지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요금 징수 등은 현실적으로 유보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이종담 천안시의원, “도솔공원 주차요금 징수 1년 유예해야”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 제안

2017년 12월 01일 충청뉴스]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쌍용3·불당동)은 지난 30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솔공원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도솔공원 주차장사용 요금 징수를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 도솔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중 “도솔광장을 천안시의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겠다고 장미빛 전망을 하고 사업비 565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했지만, 자칫 시민이 찾지 않는 관리비만 낭비되는 계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시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인 세계민족음식테마관에서 보듯이 잘못된 정책은 엄청난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준공 후 도솔공원에서 치러진 행사 대부분이 시 주관 하에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특히 일정 수준의 이용객들이 도솔공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장 사용 요금 징수를 2019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종담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오늘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문제점]

1. 도솔공원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할 방법이 필요
  - 현재 큰 도로 속에 갇힌 공간으로의 역할 : 사람이 찾기 어려운 위치적 한계점
2. 인근 활성화된 천안의 대표적 공원이 위치함
  - 단국대 인근 천호지 : 인근 대학생 및 주민 활용 활성화된 우수 사례 공원
  - 천안 삼거리 공원 : 천안의 다양한 대형 행사 장소 및 천안 박물관 등 접근 및 활용성
3.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으로서의 장점 확보의 어려움
  - 창조적인 시설물 및 기념물 등 설치에는 과대한 비용 투자가 예상됨

3) 향후 운영 특화된 공간으로서의 활용 확대 필요 공간

-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무궁화 교육 장소로서의 활용 확대 필요
- 반려견 놀이터 : 반려견이 마음 편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반응 좋음)



다양한 무궁화 식재(차별화)



반려견 놀이터(향후 사용 증대 예상)



#### 4) 시민 참여 공간으로의 확대 방안

- 야외무대 : 인근 대학 동아리 및 천안지역 동호회 공단 활용 MOU



도솔광장 야외무대



천안시 음악동호회 연합회 행사 연계

- 넓은 잔디 공원 : 천안시 사립유치원 협의회 활용 방안 모색



도솔광장 안의 넓은 잔디 공원



천안시 사립유치원 연합회 행사 유치

- 운동 시설 공간 : 천안 대학 연합 및 동아리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



도솔광장 안의 운동 시설



천안지역 대학연합회와 공간 활용 MOU

- 스포츠클라이밍 : 지역 전문 동호회와 활용 방안 모색



도솔광장 안의 운동 시설



트레킹 동호회 연계 전문가 과정 운영

- 시의 거리 : 새로운 콘텐츠 전시 공간으로의 활용 모색



도솔광장 안의 시의 거리



천안 디지털 사용자 모임(전시회 연계)

- 반려견 놀이터 : 전문 교육 및 시설 운영 관리 위탁 기관 선정



반려견 놀이터 특성화 공간 육성



**중부애견학교**

TEL : 041-566-5947 H.P : 010-5462-5947  
중부애견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2길 75  
Copyright © xn--ib9av1tchgzdpdy69b51r.koint.kr 2016, /  
천안애견훈련소

애견학교 등 전문기관에 공간 운영위탁

#### 5) 도시공원이 바람직한 운영 방안

-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는 도시공원의 여러 가지 목표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 많은 공원들이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민간단체 시설 이용도 한정적이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음.
- 국내외 공원 사례를 보면 시설 대여와 같은 부분은 공원관리 주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자원봉사 운영 및 생태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인 센트럴파크나 국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서울숲공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원의 서비스 질과 연속성을 높이고 있음.
- 공원 위탁운영기관들은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서서 홍보, 마케팅, 모금 등의 활동을 통해 공원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4. 향후 과제

-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해외의 경우 민관 파트너십이 이미 정착됨에 따라 재단설립을 통한 도시공원의 다양한 참여는 이미 보편화되어짐. 국내에서도 생명의 숲, 서울그린트러스트, 한국녹색문화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등과 같은 재단들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재단들은 해외에 비해 활동이 제한적이고 도시공원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와는 역할이 다르고 주체성과 위상도 다름.
-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마련, 조성 시 아이디어 제공, 시민의견 수렴, 유지관리 시 시민의 자원봉사 등 토지매입부터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유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함.
  - 천안시의 많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포용하지는 못함.
  - 연구 진행자 역시 인근 대학 밀집촌을 감안 “고속버스 정차 기능” 제안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 내 제안한 지자체 일부 행정가의 의지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데 많은 한계성이 있는 상태임.
-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를 보면 공원기금 조성, 공원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운영 등 민간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관리 운영함으로써 질적 서비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참여의식과 재원확보를 통해 대부분 활성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민의 참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인력 및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단이나 공단과 같은 위탁기관이 필요하도 판단됨.
- 기업들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들이 홍보를 위해 투자하는 매체광고비의 일부를 공원녹지조성에 투자하도록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공원 내 스포츠 클라이밍 설치탑 일부에 천안 12경을 홍보하고 있으나, 상부에 광고판 등을 설치하여 민간기업의 홍보 광고판으로 기획 시 지리적 위치 등의 강점이 있어 수익금 발생의 사례로 연결될 수 있음.
- 울산 대공원의 경우 SK가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후, 공원 홈페이지, 공원 내 SK광장을 조성하여 브랜드 네임을 홍보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 1) “도솔”이라는 이름을 최대한 홍보에 활용하자.
  - “왜! 천안에 도솔공원이지?” 라는 흥미를 가질 동기부여 활용
  - 역사 속 도솔의 의미와 이를 스토리텔링,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테마 개발



도솔공원 안의 도솔 유래비 활용



도솔공원 안의 정자 활용

- 2) 천안의 역사적/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새로운 행사 기획
  - . 천안 삼거리 : 물류/사람이 모이고, 소통되는 곳
  - . 현재 천안/충남 지역 외국인 대학생 대상 새로운 행사 프로그램 기획
  - 옛날 과거시험과 같은 “사생대회(한자/시/사군자 등)” 개최: 지역 대학 공조
- 도시공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분야에서 거듭되고 있음. 2007년 경기도 공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 ① 수림대와 수경시설이 부족하다.
  - ② 과도한 포장대신 흙 길이나 자연재료로 포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③ 공원관리가 부실하다.
  - ④ 공원과 무관한 시설이 있다.
  - ⑤ 자연을 파괴하는 공원이 있다.
  - ⑥ 공원녹지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등의 문제를 시민들이 지적
 이는 국내 대부분의 공원이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시됨.
- 도시공원은 도시가 고밀도화 되고 도시 내 휴식 공간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도시 미관 적시설로서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밀착하여 휴식·운동·행락 등에 이용되는 경향이 많음. 또한 도시 내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화재가 번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재해 발생 시 피난 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함.

이런 다기능 관점에서 도솔공원의 사용 활성화 및 재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면 향후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1) 대전발전연구원(200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 2) 국토해양부(2011),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연구
- 3) 경기개발연구원(2009), 경기도 공원운영 비즈니스 모델 제안
- 4) 인천광역시(2006), 인천시 랜드마크를 위한 중앙공원 환경개선 사업
- 5) 경기개발연구원(2004),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 친화성 향상 방안 연구

## 5.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현장 방문(천안 인근)	20회 (유류비)	200,000
현장 방문(타 지역)	5회 (유류비 외)	300,000
학회 가입 및 도서구입	-	150,000
복사비 및 기타 경비	-	100,000
방문시 기념품/선물	-	150,000
인건비	2명	600,000
합		1,500,000

# 02

[2017 하반기 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성과보고회]

## 공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립적 협동 사회경제 구축 가능성 연구

---

박 승 옥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공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립적 협동 사회경제 구축 가능성 연구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자립이 가장 큰 과제임

#### ①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남북,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서구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서구와 다른 특징을 띄면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체에 대한 논의는 서구서도 이미 19세기부터 나라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 그러나 서구의 사회적경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1970년대 이후 당시 유럽에서 새롭게 모색되던 협동조합운동과 공제조합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실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다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려는 논의들이 데로슈(H. Desroche), 드푸르니(J. Defourny) 등의 주도로 주로 프랑스에서 제기된 이래 사회적경제 논의는 서구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강조점과 편차를 보이면서 이어져오고 있는 중이다.(엄형식, 2008)
-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논의는 이 같은 서구의 이론화 작업 시도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대한 거의 모든 이론과 사상이 서구에서 수입된 것이었듯, 사회적경제 논의 또한 그 단초는 수입 이론이었다.
- 그럼에도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특히 6.25동란 이후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과 북,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서구의 사회적경제운동과는 몇 가지 명백히 다른 특징을 보이면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사회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야만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를 보충하는 경제제도와 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설정되었다기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를 공히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운동으로서, 특히 국가주의로 귀결된 사회주의 경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사회경제운동이자 또한 당위의 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실천되고 논의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성공시킨 한살림운동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은 명확해진다. 한살림운동은 처음부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생명 사상의 운동이었다. 한살림운동은 결코 소비자협동조합운동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심과 살림의 동학 사상을 기반으로 한 생명살림의 농업과 농민운동, 생산자운동의 측면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틀로서 선택된 조직 형태가 다른 아닌 생협이었던 것이다.
- 즉, 한살림운동은 유기농을 중심으로 소비자만의 협동조합운동이 아니라 농민 생산자와 공생하고 상생하는 도농 상생의 새로운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서구 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도 다르고, 일본 생협운동과도 구분되는, 세계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 다른 아닌 한살림생협운동이었다.
- 한국 생협운동이 시장과 가격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처음부터 배격하고 신뢰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생협운동을 실험했던 것은 이 같은 한살림운동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한살림운동의 신뢰와 사람 중심의 가치가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고 확산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생협운동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사회 제도이다. 자본주의의 최고 목적은 오직 자본의 최대 이윤 실현이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국가화라는 사회주의 혁명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구성된다. 사회주의의 최고 목표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의 실현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사람의 모임과 연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최대 목표는 구성원들의 최대의 경제적 편익, 나아가 자유인들의 연대 사회 구현이다.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나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을 조직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 출발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궁극 목표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유인들의 연대로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체 사회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해야만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다는 측면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곧바로 북한 추종의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주홍글씨다. 그리고 이런 주홍글씨가 아로새겨지는 순간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는 확산과 성장은커녕 전혀 호소력을 가질 수 없는 소수의 주장으로 그치고 만다.

## ②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마을공동체 재생

-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처음부터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재생 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은 공히 한국전쟁 이후 마을공동체가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 파괴되고 해체된 유례가 없는 압축 파괴의 국가주의 나라였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마을공동체를 국가가 강하게 아예 흡수해버린 전체주의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버이 수령이 벌과 개미 사회와도 같은 군집 유기체처럼 인민 개개인과 강하게 연결된 초유기체 국가가 북한인 것이다.
- 반면에 남한은 자본주의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공동체가 모조리 해체 파괴된 뒤 남게 되는 개인들이 사막 사회의 모래알처럼 극단으로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개인주의 사회로 변질돼 버렸다. 거대 국가와 모래알 개인은 자본주의 영리경제의 상품 소비 확대에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사회의 전망은 사회와 국가를 작동시키는 두 가지 주요 동력과 요소, 즉 에너지-천연자원, 그리고 농업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요구한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고갈(Peak Everything), 기후재앙과 식량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본주의 극복의 대안 경제는 결국 에너지와 농업을 중심으로 자립자치의 마을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경제 외에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에너지와 자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미래를 조사 연구하는 대다수 전문가와 사회활동가들이 동의하는 바는 탈핵-탈화석연료의 대안 사회 중심에는 국가로부터 자립 자치 공동체로의 중심 이동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극점으로 치닫는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서구와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 또한 지역공동체 해체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에는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역공동체의 전통이 뿌리깊게 살아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는 특히나 농촌에서건 도시에서건 마을공동체의 붕괴와 해체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사회에는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제 마을공동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한국에서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근 10여년 동안 약 6백만 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이주하였다. 해방 직후 100만 명 수준이던 서울의 인구는 30년 만인 1980년대 중반 그 10배인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인구 구성비로만 본다면 역사상 최대의 민족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약 2천만 명 이상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였다. 1970년대 남한 인구가 약 3천만 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세계 역사상 이처럼 단기간에 이처럼 대

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필연의 결과 이외에 또다른 요인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 사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북한 공산 정권의 점령과 연루된 이른바 좌익 부역자 가족의 수는 거의 절대 다수였다. 친일매국 지주와 자본가, 친일매국 경찰과 군인 등 극소수의 극우 친일매국 가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족들이 구성원 가운데 대부분 좌익 부역자가 있었다.
- 오늘날 완고한 한국 보수 극우 지배세력의 뿌리깊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경찰과 군인, 지주와 자본가 가족들은 미군정이 넘겨준 적산과 함께 한국전쟁 직후 좌익 부역자 가족의 재산을 약탈해서 축적한 약탈경제를 통해 급속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당시 농촌 지역 부의 상징이었던 지역 정미소와 양조장 등은 이렇게 극우 보수세력의 손으로 강탈당해 넘어갔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 좌익 부역자 가족은 농촌 공동체 내에서 살 수가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부역자 직계 가족에게는 통행증도 발급되지 않았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교회였다. 한국 개신교의 급속한 성장 배경에는 한국전쟁과 좌익 연좌제라는 반공 정신병동 사회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이 숨어 있었던 셈이다.
- 그런데 이들 부역자 가족에게 농촌 지역공동체를 탈출할 수 있는 생존과 도전 기회가 1960년대 말에 제공되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과 함께 신천지로 도래한 도시 주민, 도시 노동자로서의 신분 이동이었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도시화, 노동자화의 이면에는 이같은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혀 있는 실명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벗어나 익명의 도시 시민으로의 신분 이전이라는 기제 또한 작동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이처럼 해체된 마을공동체의 재생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진행되어야만 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자립과 자치

- 또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강한 과잉 국가주의의 영향 아래 처음부터 인민의 자율과 자립 자치를 가장 주요한 중심 의제로 놓고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은 사실 당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는 자유인들의 연대경제이다. 자본주의의 노예 노동자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를 쟁취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다. 자본과 국가의 억압과 수탈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고군분투하는 해방의 진통이 없다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는 어렵다. 자본과 국가에 대한 뿌리깊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 자립 자치의 가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 동시에 경쟁 대신 스스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생각을 바꾸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자유인의 연대 경제는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개인이건 공동체인 국가건 자립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면 자유인의 삶, 자유인들의 연대 경제는 지속불가능하다.
- 한국 경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관료경제는 경제개발 시기에는 재벌 형성과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생사여탈권을 쥐 경제 제도였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재벌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영리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관료경제와 자본주의 영리경제와 달리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조직해서 경제활동과 경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는 정부 예산 지원이나 기업 기부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야만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외부 지원과 자선이 끊겼을 때 사회적경제 사업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은 흔히 관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양태이며 한국에서도 이는 지금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 흔한 일이기도 하다.
- 한국 신흥운동이 그렇게 외부 지원 없이 훌륭한 자율 자치의 모범을 보이며 출범했고,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 생협 등 한국의 생협 운동이 그렇게 어떠한 외부 지원 없이 지역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일구어 나갔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 사이의 이른바 협치(거버넌스)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국가 권력은 심지어 화장실을 생태 화장실로 개조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만큼 아직도 행정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은 사회적경제를 관리 감독의 대상으로, 통제와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중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의 기미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행정권력의 협치로의 환골탈태와도 같은 근본 변화는 관료제도의 뿌리깊은 관행과 법, 제도 아래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한국 경제의 심각한 대외의존성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한국 시장 장악에 맞서 처음부터 강력한 대안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국가 탄생부터 당시 남한의 정부였던 미군정의 강한 영향 아래 거의 신식민지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 종속된 나라로 출발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바 있듯이 한미 FTA 협상의 한국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주한 미 대사에게 보고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고위 관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제시대 친일파에 버금가는 친미파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것이 신념화된 극우 친미 세력들은 놀라울 정도로 깊숙이 한국 사회의 정, 관, 재계를 장악하고 있다.

- 결국 한미 FTA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신흥과 농협, 공제조합 등 한국의 사회적경제 영역까지도 장악하려는 미국 월가의 입김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말았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쌀 개방 문제 또한 이런 대외종속성의 표현으로서 한국의 생협운동, 협동조합운동은 이같은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강한 자립과 자치의 국민경제로 바꾸는 운동이기도 한 것이다.

#### ④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관제 사회적경제

- 이처럼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서구와는 다르게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롯된 여러 특성을 지니고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쟁에서 협동으로의 가치 전환도 자본주의 시장 경쟁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경쟁까지 고려한 발상의 전환을 모색해야만 했다. 국가주의도 그냥 국가주의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아예 모래알로 산산히 흩어져버린 상태에서 극단의 과잉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 당연히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처음부터 국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와의 협치 또한 민간 주체성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곧바로 정부의 관리 감독과 개입과 싸워야만 하는 조건 속에서 사회적경제 운동을 전개해야만 했다.
-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본격 법제화되어 정부 주도 사업의 하나로 전개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 도시 빈민운동의 주요한 경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봉제, 건축 중심의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운동을 김대중 정부에서 일정하게 국가 복지정책으로 제도화하려는 선행 시범 사업 등의 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법제화였다.
- 서구의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협동조합이다. 이와 달리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이며, 노동자 임금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실상의 복지 공기업 또는 관제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제정되었고, 한국의 특수한 국가 복지 역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넣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이후 사회적기업은 빈곤 계층의 일자리 창출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노동부의 예산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사회적기업 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차상위 빈곤계층의 국가 복지 예산 전달 체계로서 지역자활센터라는 중간지원기관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 이후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복지 관련 정부 예산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중단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그리고 이같은 조건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자립 자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지역 사회의 자립적 사회적경제 순환 구조가 지체되고 있는 중이다.
-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자립자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경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예산에 종속되는 관료경제의 하위 보조경제로 편입되기보다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자립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지속가능 자립의 원동력인 지역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조직화 전략 부재

-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연대 경제이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대면의 인간 관계, 실명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사업을 벌이는 것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라는 뜻이다. 실명의 인간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지역공동체와 직장이다.
-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제품과 서비스는 신뢰재이다. 사회적경제의 경쟁력은 지역공동체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경쟁 전략은 지역 소비자 조직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효시 기업인 울고는 5명의 지역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었다. 울고의 최초 제품인 석유곤로를 불량임을 알면서도 사 준 것은 다름 아닌 조합원이자 지역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두 번 다시는 불량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후배이자 친척이자 친구인 청년들에게 울고 제품의 개선을 주문했고, 그같은 신뢰와 격려에 힘입어 밤낮으로 제품 개선에 주력한 결과 울고는 창업 5년만에 스페인의 100대 기업으로 성장한다.
-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지역 사회적경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비자 조직화 전략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공주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공주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인근 대전시와 세종시에 인구와 상권의 대부분을 뺏기고 지역경제가 정체돼 가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세종-대전시민을 포함한 소비자 조직화 전략을 수립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



## ○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파괴와 지역순환경제

- 오늘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쉽게 말해 그 핵심은 사람의 일자리 파괴(job kill)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일자리 파괴의 측면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나노, 정보기술 등의 과학기술 발전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역설이다.
-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세계는 핵과 화석연료 에너지 체제에서 햇빛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체제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동시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몰고 온다. 그 중심에 전기차가 있다. 지금 전세기 자동차 산업은 AI, IT, 빅데이터, 특히 디자인 기술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전기차 산업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쉽게 말해 디자인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역 청년 5명에서도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이 전기차 사업이다.
- 재생에너지 체제란 주택 건물의 지붕과 벽에 소형 햇빛발전소를 세우고, 골짜기에 소형 바람발전소, 개울과 강에 소형 소수력발전소, 축산 농가에 소형 바이오발전소를 세우는 분산형 에너지 체제, 지역 에너지 자립체제다. 거대한 송전탑이 필요없는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다. 따라서 전력 직거래를 비롯한 프로슈머, 전력저장장치(ESS) 등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운영과 함께 새로 창출된다.
- 전기차와 햇빛발전, 전력 직거래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유기농 로컬푸드 사업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역에서 직거래 하는 지역순환경제에 가장 걸맞는 사업이다. 소비자에 특화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인 사업이며, 이같은 소비자 중심의 사업은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가장 적합하다. 앞으로 모든 산업은 이같은 소비자 네트워크가 없다면 지속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재생에너지 체제와 전기차 산업 등 산업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는 지방분권 가운데 에너지 분권을 가장 주요한 의제로 격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소비자 조직화 전략의 수립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 ○ 시급한 공주지역 사회적 경제 현황 실태조사

-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2017년 7월 20일 공주 지역 20여 개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모여 창립한 지역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이다. 현재 공주 지역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농조합, 신협, 농협 등 명목상으로는 50여 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있음에도,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제대로 된 정확한 조사 분석 없이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 따라서 공주 지역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를 바탕으로 공주 지역의 소비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목적

### ○ 실태 조사를 통한 공주 사회적경제의 특성 파악

- 한국 사회적경제 운동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제약과 악조건 속에서도 놀랍고도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협동과 연대의 새로운 대안 경제를 모색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가운데서도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자립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의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 운동은 지역공동체 재생과 함께 새롭게 전진할 수 있을 힘을 지역 주민들 속에서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공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공주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현황과 실태 조사를 기초로 위 연구 배경에서 기술한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공주의 사회적경제 단위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 현재 50여 개에 이르는 공주 사회적경제 사업체 가운데, 농협과 신협, 영농조합 등을 제외하고, 공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회원과 준회원 약 20~30여 개 기업의 설립과 연혁, 임직원 현황, 출자금, 제품과 서비스 종류, 매출액, 제품과 서비스 판매 방식과 판매 경로, 소비자 조직화 방식과 전략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공주 지역 전체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와 특성, 공주 지역 고유의 사회적경제 지역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했다.
- 특히 이 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의 가장 주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상호거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 ○ 공주 사회적경제의 특성에 걸맞는 최적화된 소비자 조직화 전략의 기초 자료 정리

- 지역 소비자 조직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직화 전략이라는 관점에 걸맞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실제로 공주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지부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주 소비자 조직화 전략은 특히 로컬푸드를 포함하여 먹거리를 중심으로 세종과 대전시민까지 포괄하는 조직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가능한 이에 걸맞는 조사를 시도하고자 했다.

### ○ 리빙랩 시범 사업의 사전 조사

- 공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이번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소비자 조직화 전략을 구체화 해, 특히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을 공주 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준), 충남연구원, 농식품부, 충청도, 공주시 등과의 공동사업으로, 공주지역 공단과 축사 지붕 위의 햇빛발전소 사업을 (가)공주 햇빛발전협동조합, 충남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충청도, 공주시 등과의 공동사업으로, 유구마곡 지역 마을공동체 사업을 두레배움터, 충남연구원, 농식품부, 안행부, 문화부, 충청도, 공주시 등과 공동 리빙랩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과 내용

### (1) 연구 방법

#### ○ 문헌 조사

- 심도 있는 공주 사회적경제 실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체계를 갖추어 조사 연구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이제 막 창업하고 있는 단계로서 공주 사회적경제의 형성 초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정부 예산 지원의 사회적기업 사업이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조사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간의 공주 시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방증 자료이기도 하다.

- 공주시 누리집에 올려 놓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 5개, 예비 사회적기업 3개 등 총 8개가 있다. 마을기업은 7개가 있다.(공주시 누리집. 2018. 3. 30.)
- 공주시 협동조합은 2018. 3. 30 현재 29개가 있다.

#### [인증 사회적기업]

- (사)충남교육연구소(조재훈),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농촌지역 생활문화 활동, 2010년 인증
- (주)공주돌봄(유인숙), 간병·돌봄서비스, 2011년 인증
- (주)쥬얼테크(김경아), 백제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2011/2013년 인증
- 충남공예협동조합(양미숙), 충남공예품 전시 판매, 2012년 인증
- (사)삼취복지재단 두레일터(조우연), 골판지상자 제조업, 2013/2015년 인증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자연의소리 사업단(이응우), 자연미술교육, 문화예술기획, 2013년
- 농업회사법인 공생공소(배연근), 꾸러미 배달서비스, 제철 농산물 판매, 2014년
- (재)명학 장학회(최석원), 장학사업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2015년

#### [마을기업]

- 꽃내미꽃이랑마을(김규창), 주말도시 체험관 운영 및 농산물가공직거래활성화사업, 2010년
- 무르실영농조합법인(양성모), 농촌체험 및 공주치즈스쿨 체험학습장 운영, 2011/2012년
- 산성자연애영농조합법인(정지영), 유기농 알밤가공 납품 및 숙박시설 운영, 2011 / 2012년
- 정안밤톨이정보화마을(임재영), 정안밤 포장 판매 및 장 담그기 체험행사, 2012년
- 공주친환경밤협동조합(최성철), 친환경밤 가공 및 유통사업, 2013년
- 농업회사법인(주) 춤추는꽃동네(변명숙), 100가지의 꽃차판매사업, 2013년
- JT 영농조합(김영록), 농산물 가공, 2014년

#### [협동조합]

(\* 기재부 협동조합 설립 현황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은 정관 등 설립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실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협동조합명	설립일	유형	주요사업
우리씨앗농사 협동조합	2016.04.19	사업자	-토종, 재래 주곡 쌀, 보리, 밀 생산, 가공 및 유통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농·축산 생산을 위한 작목반과 영농조합 -농·축산물의 보관, 처리, 가공, 포장을 위한 사업 -시범판매장, 시범식당,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판매장 -온라인 장터 등
고마협동조합	2017.11.27	사업자	1. 구석기 문화체험 및 축제 참여 2.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3. 교육, 체험(역사, 문화, 영농 등), 관광, 홍보, 공연, 숙박사업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5.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충남개별화물 운송사업 협동조합	2016.03.28	사업자	화물운송관련 인터넷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유구인견산업 연구협동조합	2015.05.26	사업자	1. 인견의 생산, 유통, 판매사업. 2. 인견 제품의 디자인 개발 사업. 3. 인견 생산을 위한 기술 교육 사업. 4. 인견 생산 원료의 유통
협동조합 대한민족문화 예술전승회	2014.10.08	사업자	-민족정기와 정신문화 원류의 고증 연구 및 홍보사업으로써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및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민족문화예술의 선양 및 추도 전승사업으로써 교육 서비스업 및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주한겨레두 레협동조합	2015.02.24	소비자	1.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상부상조 사업. 2. 조합원의 애경사와 가정의례, 일상용품 공동 구입 등. 3.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4. 조합원과 직원의 생활개선과 상담,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조사연구, 문화사업. 5. 조합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홍보 및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사업
공주명물명품 갤러리 협동조합	2015.11.12	다중이해 관계자	1. 율피를 이용한 비누 등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 2. 천연염료를 이용한 염색 및 염색제품 생산 판매. 3. 꽃차 생산 및 판매업. 4. 도자기 생산 및 판매업 5. 찻집 및 음식점업
늘향 하신마을 협동조합	2016.09.02	사업자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마을 이정표 세우기 사업. 5. 김장 체험
지역상권육성 사회적협동조합	2017.08.14	다중이해 관계자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협동조합명	설립일	유형	주요사업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2016.02.15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경제 교육 등
한국전통악기제작공연기획협동조합	2016.04.19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악기 제작 및 판매사업</li> <li>-전통악기 제작 체험사업</li> <li>-전통악기 공연 기획사업</li> <li>-전통악기 연주교육 및 공연장운영사업</li> <li>-해외악기 전시 및 공연사업</li> <li>-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li> <li>-조합원과 지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li> <li>-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li> </ul>
두레적정기술협동조합	2014.05.26	다중이해관계자	생태건축, 적정기술 보급 확대
공주나드리협동조합	2014.04.23	사업자	5도2촌 주말도시 공주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마을 알선(농촌체험마을과 도시방문자와의 연계 통로)</li> <li>· 포털사이트 운영</li> <li>· 농촌체험마을 지도자 교육 및 양성 등</li> </ul>
고마드림협동조합	2018.03.26	사업자	직거래장터, 직매장운영, 프리마켓운영
공주산성시장협동조합	2012.12.14	다중이해관계자	전통시장활성화
공주친환경밤협동조합	2013.03.11	사업자	농산물 가공, 유통
도령서당명덕재산골교육사회적협동조합	2015.10.07	다중이해관계자	산골유학센터운영, 지역아동돌보기
공주드림팜협동조합	2015.05.21	사업자	1. 농촌관광사업. 2.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의 6차 산업
드림즈마을협동조합	2016.12.09	사업자	마을카페 운영
공동체무성산마을협동조합	2017.02.22	다중이해관계자	공예품,작물,카페등 판매, 농촌체험학습장 및 공예체험학습장운영, 문화컨텐츠사업, 교육사업 등
우리놀이협동조합	2013.08.22	다중이해관계자	전통문화관련사업
충청남도염소협동조합	2014.01.15	사업자	염소사육및 공동출하
알밤나래	2014.01.15	사업자	밤가공 판매

협동조합명	설립일	유형	주요사업
협동조합			
충남도자기협동조합	2013.07.04	사업자	도자기 생산 판매업
공주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2014.12.16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물보호제 판매 사업</li> <li>-씨앗 및 모종 판매 사업</li> <li>-농자재 및 농기구 판매 사업</li> <li>-묘목 판매 사업</li> <li>-비료 및 미생물제재 판매 사업</li> <li>-농산물 판매 사업</li> <li>-전자상거래 사업</li> <li>-무역업</li> </ul>
공주학교급식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	2016.09.23	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의 실익증진 사업(농산물 출하와 판매를 위한 시설 및 물자지원 / 조합원 교육 훈련)</li> <li>2. 협동조합 및 관련기관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구입, 제조, 가공, 공급 등)</li> <li>3. 협동조합의 수익사업 및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대행 및 비축사업</li> <li>나. 농산물 공동재배시설, 체험학습장, 견학시설 등의 공동설치 및 홍보 지원</li> <li>다. 공동유통, 공동가공 출하를 위한 유통시설 등</li> <li>라. 생산 및 출하와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등</li> </ul> </li> <li>4.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 장학사업/청소년 가장 가정 지원, 김장나눔 등 소외계층 지원, 직원 및 계약직 및 일일용역 장애인 우선 채용 등</li> </ol>
국선교육협동조합	2015.12.31	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선도 관련 공동구매사업.</li> <li>2. 외부 교육 전문강사 양성.</li> <li>3. 교육서비스 사업.</li> <li>4.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li> </ol>
행복여행디자인협동조합	2015.10.12	다중이해관계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복여행을 위한 맞춤형 체험여행디자인 사업.</li> <li>2. 자기계발 및 웰스케어를 위한 행복여행 교육사업.</li> <li>3. 행복여행을 위한 체험여행상품기획사업.</li> <li>4. 행복여행을 위한 인센티브투어 컨설팅사업</li> </ol>
충남원목생산업협동조합	2016.10.10	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벌목사업</li> <li>2. 육림사업.</li> <li>3. 도시림사업.</li> <li>4. 대리경영사업.</li> <li>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li> <li>6.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li> <li>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li> <li>8.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li> </ol>

## ○ 방문 인터뷰 조사

- 공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단체는 모두 48개다. 공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 몇 개 더 많은 것은 법인은 주식회사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조만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몇 개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 이 가운데 회비를 낸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 단체는 9개다.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준회원 단체는 11개로 총 20여 개 단체가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 공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주로 회원 단체를 중심으로 방문 인터뷰 심층 조사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방문을 하지 않은 단체는 비회원 단체까지 포함해서 전화나 서면 등으로 조사를 하고자 했다.
- 그러나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만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사업 지속성이 열악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은 공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 단체 현황과 방문 조사 일정을 표로 정리한 자료이다.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7년 가입 단체			
연번	기관명	대표자	비 고
1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고진두	
2	(사)충남교육연구소	조재훈	
3	JT영농조합	김영록	
4	갈등조정문화연구소	이건용	
5	공동체 세움	김종수	
6	공주지역자활센터	최미숙 네트워크 이사	
7	공주한두레협동조합	박승옥 네트워크 대표	
8	공주한살림	이경희 네트워크 감사	
9	두레적정기술협동조합	김환기	
10	드림즈마을협동조합	이지은 네트워크 이사	
11	마을기업 고마야토 협동조합	황영인	



12	사회복지법인삼휘복지재단두레일터	조우연 네트워크 이사	
13	산성자연애영농조합법인	정지영	
14	우리놀이협동조합	이태하	
15	우리씨앗농사협동조합	이은행	
16	주식회사 숲문화센터으밀아밀숲	이상순 네트워크 사무국장	
17	(주)공주주거복지센터	남궁기원 네트워크 이사	
18	(주)농업회사법인공생공소	배연근 네트워크 이사	
19	(주)춤추는 꽃동네	변명숙	
20	흥미진진시골동물농장 영농조합법인	이장하	
<p>-공주시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총 48단체 (협동조합, 영농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이지만 사회적경제를 하는 기업)</p> <p>-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 20단체(준회원 포함)</p> <p>-2017년 회비 납부 단체 9개단체 우리놀이협동조합, 공주시 참여연대, (주)공주주거복지센터, 공주한겨레두레협동조합, 충남교육연구소, 두레일터, 제이티영농조합, 공생공서, 으밀아밀숲</p>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7년 회원 방문 조사		
일시	기관방문 장소	비고
2017년 08월 17일	공생공소	
2017년 08월 24일	드림즈 마을기업	
2017년 08월 31일	두레일터	
2017년 09월 07일	흥미진진시골농장 마을기업	
2017년 09월 14일	두레배움터	
2018년 02월 07일	한살림	
	자연의소리협동합	
	고마공방	

## (2) 주요 조사 연구 내용

(\* 조사 결과 요약과 사진 자료는 붙임 파일 참조)

- 조사의 주요 항목은 ① 사업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② 제품과 서비스 판매 방식, ③ 소비자 조직화 실태, ④ 지역순환경제와 연대 활동 수요 조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 조사는 주로 대표자 또는 상근자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했다.

### ① 사업의 자립성, 지속가능성

- 정부의 지원과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대체로 정부 지원이 끝났을 때 사업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이는 초기 자금과 시설 투자의 열악함을 개선하면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창출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사업을 시작했기에 어느 면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제품과 서비스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복지 사업 중심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주지역자활센터는 20여년 가까이 자활 근로 사업, 자활 공동체 사업, 기타 사업 등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었다. 특히 공주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에너지재단 사업 이외에 일반 건축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 사업의 자립도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 두레일터는 장애인 사업체이면서도 특수 골판지라는 사업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흔치 않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다.
-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한살림 생협을 제외하고, 정부 공모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창업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어 선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업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곳이 태반이었다.
- 결론적으로 공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은 한살림생협, 두레일터, 공주지역자활센터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생성 단계에 있으며, 가치와 지향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② 제품과 서비스 판매 방식과 소비자 조직화 정도, 연대 활동 필요성

- 한살림생협을 제외하고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조사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주시와 충남도,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사업 정보와 분야별 관련 공모사업 정보와 소식이었다.
- 공주를 중심으로 세종, 대전 등지의 소비자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런 소비자 조직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면 좋겠다는 희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소비자 조직화가 실현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나타냈다. 그 같은 조직화 사업을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허한 이상론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3) 조사 결과 요약과 제언

- 공주 사회적경제는 그야말로 맹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창업 이후 각자 도생으로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 때문에 상호부조와 상호거래, 소비자 조직화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연대가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었다.
- 소비자 조직화와 상호거래 작업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공주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에서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과 재정이 없다.
-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직접 지원보다 이런 기초 지자체별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경제의 초기 기반 조성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예산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때문에 충남연구원과 공주시, 충남도 등이 공동으로 공주 사회적경제 연대조직과 함께 리빙랩 방식으로 식생활 먹거리 교육부터 다양한 교육 사업과 홍보기획 사업을 결합해서 실제적인 공주 지역의 소비자 조직화 실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끝.

### 3.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인건비	15만원 × 6개월	900,000
조사연구비	20개 업체	600,000
합		1,500,000

#### 〈붙임. 조사 결과 요약과 사진 자료〉

회사	법인형태	조합원 수	생산품목	연도별 매출 실적 및 목표매출	판매방법 (유통)	정부지원	공주시청에 하고 싶은 말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하고 싶은 말
A	협동조합	27명	놀이체험 서비스			없음		
B	개인 농원	2	배	2000만원	직거래	없음		
C	협동조합	108개 업체	공예품	5억	직영매장	없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자료 없음
D	협동조합	30	농산물	17년 3억	직거래 납품			
E	협동조합	26	토종 쌀. 밀. 밀가루. 조. 수수. 들깨. 콩	2016년 (1천만원) *2017년 (3천만원)	블로거. 수도권 유가농매장. 폐북. 로컬푸드매장. 베이커리. 전문 쌀판매장		농업의 순기능을 선순환을 위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실질적 서로 협력. 협업. 도 일고성. 경제에 되는 시도하고. 양생의 방향성. 그리고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F	사회복지법인	35	골판지 상자	40억원	제조	사회적 기업		
G	비영리 법인		자활사업 일반음식점 부업사업 돌봄사업 등	4-5000천	식당 운영 위탁 사업 지원사업	보조금	우선구매 사회적 가치 지	방향설정
H	협동조합	1000명	다품목	년7억~8억	매장운영		협동조합들이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다양한 공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주식회사		생태활동 교육/자연 공예재료 판매	아직 없음	교육/sns		사회적경제 활동이 공주시, 되길...의생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사회적경제 활동하는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길...

## 1. 드림즈 마을 협동조합. [카페]



## COFFEE

에스프레소 Espresso	HOT 3,000	ICED
아메리카노 Americano	3,000	3,500
카페라떼 Cafe Latte	3,500	4,000
카푸치노 Cappuccino	3,500	4,000
카페모카 Cafe Mocha	4,000	4,500
바닐라 라떼 Vanilla Latte	4,000	4,500
카라멜 마끼아또 Caramel Macchiato	4,000	4,500

## HERB TEA

얼그레이/잉글리쉬/페퍼민트/카모마일 Earl Grey/English/Peppermint/Chamomile	3,500	4,000
구아바/히비스커스/모링가/흑비트 Guava/Hibiscus/Moringa	4,000	4,500

드림즈 복합문화공간

## LATTE

초코라떼 Choco Latte	HOT 4,000	ICED 4,500
녹차라떼 Green tea Latte	4,000	4,500
고구마라떼 Sweet potato Latte	4,000	4,500

한글 메뉴

₩ 4,000 ₩ 4,500

## SMOOTHIE&ADE

딸기/키위/요거트 스무디 Strawberry/Kiwi/Yogurt Smoothie	₩ 4,500
자몽/레몬/오렌지/청포도 에이드 Grapefruit/Lemon/Orange/Green grape Ade	₩ 4,000

## DESSERT

와플 Waffle	₩ 4,000
--------------	---------

드림즈 복합문화공간











[식당]



## 2. 마을기업 고마 아토



Healing Art Book

유물에서 전통문양시리즈  
재탕글 캘리그래피  
찾은 문양집

디자인\_황인영  
일러스트\_김한보



고마아토(주)













### 3. 사회적기업 자연의 소리













#### 4. 춤추는 꽃동네







## 5. 한살림 공주







## 6. 공생공소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로컬푸드 농산물로  
풍성한 설명절을 보내세요



생산지: 공주시 사곡면  
생산자: 배연근  
품목: 신고배 7.5kg 13과내  
가격: 30,000원  
택배비 별도 (3,000원 부담)  
특징  
3대를 이어온 장인기술  
과 원예를 전공한 과학  
기술로 재배



생산지: 공주시 계룡면  
생산자: 임양순  
품목: 밤 4kg (대)  
가격: 20,000원  
택배비 별도 (3,000원 부담)  
특징  
무농약으로 재배된  
공주 특산물 밤  
제13-02-3-109호



생산지: 공주시 우성면  
생산자: 배성희  
품목: 후지사과 5kg 16과내  
가격: 23,000원  
택배비 별도 (3,000원 부담)  
특징  
젊은 여성농업인으로  
3대째 사과농사를 경영  
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10-2409-9841 찾아 오시는 길: 공주시 우성면 성머리길 165  
입금안내: (농협) 355-0008-8360-93 (예금주) 공생공소농업회사법인







## 7. 흥미진진 시골농장









## 8. 두레일터





## [리플렛]



### Vision - 비전

주는 기쁨, 받는 행복,  
나누는 아름다움

**연혁**

- 2014. 12. ISO 14001 인증 획득
- 2013. 12. 보건복지부 「예비사회복지기업 지정」
- 2013. 01. 롯데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기차재 지원사업 선정
- 2012. 0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 2012. 01.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
- 2011. 1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통지」
- 2011. 07. 중소기업진흥회 「직접생산확인증명」
- 2011. 06. 한국사회복지공익성 기부금 공도사업 선정
- 2011. 01. 장애인보호작업장 「두레일터」 개원
- 2002. 12. 법인설립 「사회복지법인 상허복지재단」

## Information - 후원안내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관심에 두레일터가 큰 힘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090-1956-01

**사업계좌**  
농협 301-0090-1950-81  
(예금주 : 두레일터)

\* 후원금으로 법인세 및 법인소득세 소액세액공제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충남 공주시 탄천면 분장영달길 77-36  
전화: 041)854-6490 팩스: 041)854-6491  
이메일: du6490@hanmail.net  
홈페이지: www.durebox.com



DUREBOX  
**두레일터**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 Company - 기업소개

**설립목적**

근로여력은 있지만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돕고, 평등한 삶의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을  
지향합니다.

**작업활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사회적응훈련
- 작업훈련 및 평가
- 동근훈련
- 취미 및 여가활동
- 기타 생산활동 연계프로그램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 작업적응훈련
- 문제해결훈련
- 작업평가
- 직무기능형성훈련

**사회복지 실현**

- 지역사회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 Production - 생산 제품

### 주요생산품

**골판지 박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박스, 또는 황토색 및 갈색의  
골판지 박스  
(과자박스, 택배용 박스,  
라면박스 등)



**칼라박스**  
박스 겉면에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박스로  
골판지와 마닐라지를  
합친 형태 박스



**박스부속품**  
제품의 보호를 위한 패드, 칸막이,  
고정판 등



## Process - 제작과정

### 주문안내

찾거레 주문 : 시간작업 완료 후 7일 소요  
재거레 주문 : 7일 소요 (칼라박스 15일 소요)  
주문최소수량 : 일반박스 500매 / 칼라박스 5,000매

### 제조과정



[카달로그]



# 두레일터 직업재활서비스 안내



## 9. 두레적정기술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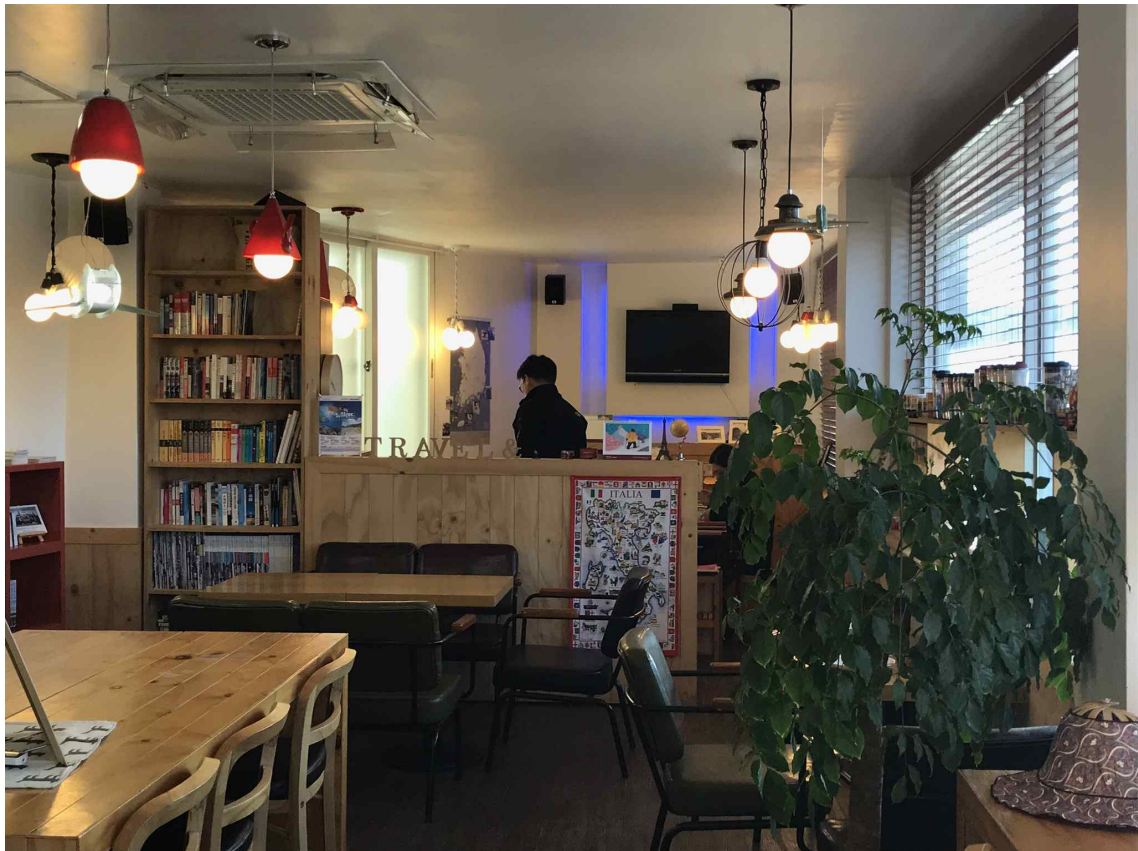


## 10. 오픈데이











# 여행사카페 오픈데이 메뉴

영업시간 : 월 - 금 (비정기 휴무) 13:00 ~ 18:00  
13시 이전 Only Take Out! 2시간 후 반드시 재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COFFEE

에스프레소	2.500
아메리카노	2.500
카페라떼	3.500
카푸치노	3.500
바닐라라떼	3.800

## LATTE

초코라떼	3.500
녹차라떼	3.500
울무라떼	3.500
홍차라떼	3.500

## 차

유자차	3.500
자스민플라워	3.500

##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3.500
----------	-------

**NO Study ZONE!** 단, 여행 공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스터디등의 목적으로 장시간 카페를 이용하실 경우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

여행사카페 오픈데이는 여행 컨설팅 및 여행 자료 열람을 위해  
방문하시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입니다.  
13시 이전에는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며,  
테이크 아웃시에는 500원 할인 됩니다. (중복 할인 안됨)  
[www.ohfunday.com](http://www.ohfunday.com)











# 03

[2017 하반기 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성과보고회]

## **‘마을은행’ 설립과 ‘마을은행 네트워크’ 구상방안**

---

이 동 근 (경제협동체 도토리회)



# 마을은행' 설립과 '마을은행 네트워크' 구상방안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필요성)

- 불안정한 현 화폐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자발적인 협동금융체의 필요성.
- 이미 세계적으로 기존 은행시스템을 대체하는 연구들이 정부 또는 국회, 풀뿌리 시민사회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중이지만, 한국은 아주 미미한 상황임. 그런 의미에서, 화폐시스템 개혁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공동체회복을 위한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금융은 너무 열악함.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마을은행 설립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임.
- 지역화폐운동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유통 촉진을 위해서도 마을은행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음.
- 홍성군 홍동지역에서 마을은행을 표방하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경제협동체 도토리회>와 지역화폐촉진활동을 위해 작년에 출범한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앞'>의 협력증진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해보는 것도 사례발굴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됨.

### 2) 연구목적

- 현행 화폐금융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국내외 연구사례를 정리하고 제시하여 화폐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린다.
- 화폐금융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주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교류협력의 기회를 가지면서 마을은행 설립에 대한 동기를 촉발한다.
-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권형 마을은행네트워크가 왜 필요한 지, 어떻게 설계할 지 구상안을 만들어본다.

### 3) 연구방법

- 해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선행연구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마을은행 설립방안 구상
- 마을은행과 연계하여 마을은행 네트워크 조직의 미래상 제시



## 2. 연구 내용

### 1) 화폐시스템의 역사 짚어보기

- 화폐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력을 갖는다.
- 정부가 화폐를 남발할 수 있다는 편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보자면, 민간은행이 화폐발행권을 갖는 것이 낫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정부가 화폐발행권을 갖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되곤 하는데, 민영화된 독일제국은행(the German Reichsbank)이 독일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시점부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사례야말로 화폐발행을 민영화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재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아담스미스는 화폐발행권은 민간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적주체(정부)가 화폐발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미국 남북전쟁 당시 정부가 발행한 그린백(Greenbacks)은 부채가 아닌, 이자 없는 돈이었다.
- 1913년 미국의 엘리트 은행가집단은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를 설립하여 정부로부터 화폐발행권한을 위임받았다. 1932년의 대공황으로 the Fed는 위기를 맞았으며, the Fed를 국유화하고 민간은행의 화폐발행권을 박탈하려는 제도개혁 일명 ‘시카고 플랜’이 계획되었으나 2차세계대전 발발이후 무산되고 말았다.
- 화폐역사가, 알렉산더 델마(Alexander DelMar)는 화폐시스템은 사회정의를 배분하는 가장 큰 장치(society's greatest dispenser of justice or injustice)라고 말했다.
- 화폐시스템의 개혁은 화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돈(money)은 상품(commodity)이 아니다. 그리고 돈(money)과 신용(credit)은 구별해야 한다. 1) 돈이 상품이라면, 그 사회는 부유한 사람들(the wealthy)이 지배한다. 2) 돈이 신용이라면, 그 사회는, 지금처럼, 은행가들(the bankers)이 지배한다. 3) 돈이 추상적인 법적강제력(abstract legal power)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법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 연방준비제도를 소수의 은행가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음모론은 화폐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조차도 불신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 자본주의 국가의 화폐시스템과 동일하게 공산주의 국가의 화폐도 은행부채의 형태로 발행되었다. 공산국가의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 2) 현 화폐시스템의 문제와 그 대안

- “현대경제에서 대부분의 돈은 은행예금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은행예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종종 오해가 있다. 돈의 생성은 기본적으로 민간은행의 대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은행이 대출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돈이 창조된다.”(Bank of England,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Quarterly Bulletin 2014 Q1)
- 현재 우리 사회의 돈의 대부분은 이자를 품은 부채(interest-bearing debt)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은행부채를 동반하지 않는(debt-free) 화폐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은 부채와 이자를 줄여 더욱 건강한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된다.
- 오늘날 주권화폐(Sovereign Money)는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로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을 말한다.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는 시중은행 계좌에 숫자로 기입되는 화폐로서, 요구되어질 때 현금으로 내준다는 은행의 지불약속과도 같다. 대체로 유통화폐의 97%가 시중은행이 창조한 전자화폐로 구성되어 있다.
- 민간은행이 무에서 창조한 돈을 빌린 대가로 미국이 갚아야 할 이자비용은 연간 대략 4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미국 연방재정의 18 - 20%에 해당된다. 즉, 이것은 마치 미국사회에 부과되는 세금과도 같은 것으로, 이 돈은 소수 은행가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법정불환화폐(fiat money)의 사적발행(private issue)이 문제이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책이 소수의 은행가들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디에 어떻게 돈을 투자할 지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화폐창조가 민간은행의 이윤추구를 위해 이용되지 않고 화폐발행권을 민간은행에서 정부의 민주적 통제로 넘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화폐시스템으로 되돌리는 것은 가능하다.
- 민간은행의 화폐발행액에 대한 한계는 없다. 그 한계는 정부, 회사, 시민이 얼마나 빌릴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 스위스는 1891년에 스위스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은 이를 금지하는 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전자화폐의 출현으로 시중은행은 또다시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제는 전자화폐도 중앙

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시기에 왔다. 즉 전자화폐도 주권화폐의 하나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의 전자화폐는 최소한의 지불준비금에 의해 보증되고 있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은행은 은행고객에게 예금을 지불할 수 없다. 스위스의 경우, 단지 전체 예금액의 1.4 %만이 지불 가능하다.
-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창조되는 전자화폐의 대부분은 금융시장으로 흘러간다. 일자리, 재화와 서비스 등 실물경제에 투입되는 새로운 돈은 20%정도이다. 현재 화폐시스템으로는 부채없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돈은 거의 없다. 이러한 부채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은행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일반사업자나 개인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한다. 반면에 은행은 언제나 스스로 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증권을 살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돈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불공정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다. 은행업은 다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취급되어야 하며 화폐창조기능은 금지돼야 한다.
- 오늘날의 화폐시스템에서 거대은행은 대마불사처럼 움직이고 있다. 투자실패에 대해서는 국가세금으로 손실을 충당하고 있으며, 은행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가운데 소규모 지역은행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돈이 주권화폐시스템 하에서 공급된다면, 은행규제는 근본적으로 단순화될 수 있고, 은행은 본연의 중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거대은행을 규제할 목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진 은행법 때문에 소규모은행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 민간은행의 신용창조를 통해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투기거품을 일으켜 금융위기를 초래하곤 했다. 주권화폐시스템으로 바뀐다면, 그래서 통화공급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채로서 창조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매겨지는 현 화폐시스템은 소수에게 부의 집중을 가중시킨다. 부채로부터 벗어난 화폐를 창조하는 주권화폐시스템에서는 총부채가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유한 사람에게 이동하는 이자도 감소할 것이다.

- 주권화폐시스템에서는 모든 돈은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하에 놓고 시중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출금계좌와 투자계좌로 구분된 계정에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나누어 예치한다. 입출금계좌의 돈은 은행이 파산해도 문제가 없고, 대신에 이자도 없다. 투자계좌는 위험부담을 갖는 대신에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권화폐시스템(sovrenign money system)과 100%준비금 제도(100% reserve banking)는 서로 다르다. 주권화폐시스템에는 오로지 한 종류의 돈(sovrenign money) 만 존재하고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공급할 수 있지만, 100%준비금제도에서는 중앙은행화폐(central bank money)와 민간은행화폐(bank money) 두가지로 나뉜다. 100%준비금 제도에서는 현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민간은행의 화폐발행권한을 막을 수 없다.
- 현 은행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어쩌면 전쟁을 야기하는 군수산업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에 우리의 돈이 투자될 수도 있다. 반면에 주권화폐시스템에서는 우리의 돈이 어디에 쓰일지 투명하게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곳에 투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현재 은행시스템에서는 은행예금의 소유권은 예금자에 있지 않고, 은행에 있다. 즉, 예금자는 은행에 돈을 맡긴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엄밀히 소유를 따진다면 그 돈은 은행의 소유이다. 주권화폐시스템에서는 은행예금의 소유권은 은행이 아니라 예금자에게 있게 된다.
- 화폐발행권을 장악하려는 세력은 소위 경제학자들을 내세워 언어와 사고의 조작을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관점을 관철시켜왔다. 현 화폐시스템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지속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 화폐제도(money system)와 금융제도(banking system)는 구별해야 한다. 금융은 정부에 알맞은 기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화폐는 공공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 3) 이자문제

- 이자는 일정기간 자신의 돈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 ‘무이자’ 은행모델에서도 예대업무에 따르는 비용을 수수료형태로 부과할 수 있는 데, 이것도 일종의 ‘이자’로 볼 수 있다.
- 현재의 부채시스템에서 돈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매겨지는 이자만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이자는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돈이 필요할 때, 자산



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돈을 구하기보다는 이자를 내면서 대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 현재 시스템에서 하위 90%의 사람들은 이자지출이 더 많고, 상위 10% 사람들은 이자수입이 더 많다. 즉, 이자를 통해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민간은행이 돈을 창출하는 시점에서 모든 돈에 부과되는 복리이자시스템을 고친다면, 이자총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자가 필연적으로 불평등사회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복리이자를 수반하는 부채기반 화폐시스템의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각국의 정부는 은행예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다. 영국은 예금자에 게 85,000파운드(한화 약 1억 3천만원)를 보증해주고 있다. 즉, 예금자는 어떤 위험도 없이 이자수입을 고스란히 얻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은행에게는 이것이 안전장치로 작동하여 모험적인 투자유혹에 빠지기 쉬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 현화폐시스템에서는 원래 이자의 의미는 희미해졌다.(일반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에 대해 위험부담 없이 이자를 받고 필요한 때에 자신의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빌린 돈에 이자를 부과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개념은 일상전반에 퍼져 있어서, 이자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재의 경제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대신에 민간은행의 부채기반 화폐창조를 금지하는 은행시스템 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4) 시노리지

- 의미 : 화폐주조차익(화폐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그 화폐의 액면가(구매력)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 프랑스어 seignior에서 유래
- 영국의 시노리지 효과(1998-2016 평균액) : 민간은행 약 35조원, 중앙은행 약 2조원
- 영국과 스위스에서는 민간은행이 누리던 시노리지를 중앙은행에게 되돌려줌으로 공공영역에 더 많은 재정을 획득할 수 있는 화폐시스템 개혁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화폐공급의 30%를 CBDC형태로 발행했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누적 시노리지는 약 2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일종의 보조금일 수 있는 시노리지 특권을 민간은행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은 화폐시스템의 민주화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이며, 민간은행들이 그들끼리의 진정한 경쟁의 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1. 화폐시스템 개혁 논의가 있는 4개 나라의 민간은행 시노리지〉

나라	기간	민간은행 평균 연간시노리지	GDP 대비 비율	누적 시노리지
영국	1998-2016	23.3 billion 파운드	1.23%	443 billion
덴마크	1991-2015	11.7 billion 덴마크 크로네	0.7%	293.4 billion
스위스	2007-2015	2.8 billion 스위스 프랑	0.6%	34.8 billion
아이슬란드	2004-2015	14.1 billion 아이슬란드 크로네	0.9%	169.7 billion

(출처: making money from making money, seigniorage in the modern economy 2017)

## 5) 각 국의 화폐시스템 개혁 흐름

### 〈미국〉

-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와 미시건주 하원의원 존코니어즈(John Conyers)가 2011년에 화폐시스템 개혁 법안 발의
- 1996년에 설립된 미국화폐연구소(the American Monetary Institute)는 이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서, 미국의 화폐시스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 〈아이슬란드〉

- 현 화폐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을 의회에서 결의
- 아이슬란드 총리가 의뢰한 〈Money Issuance, monetary alternative systems〉 연구보고서 발간

### 〈영국〉

- 17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화폐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시작
- 2010년에 벤 다이슨이 설립한 포지티브 머니(Posotive Money)는 영국에서 화폐시스템 개혁연구와 논의를 이끄는 주요단체로, 좀 더 공정한 사회, 좀 더 지속가능한 경제를 미션으로 하고 있다. 화폐개혁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 1986년에 설립된 신경경제재단(The New Economics Foundation, NEF)은 이 분야의 싱크탱크이다.
- 영국 녹색당에서도 주요의제로 다루고 있다.

### 〈스위스〉

- 시민단체 스위스 주권화폐 이니셔티브(The Swiss Sovereign Money Initiative)는 화폐시스템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청원에 필요한 시민 110,000명의 서명 달성(2018년에 국민투표 예정)

### 〈네델란드〉

- 현 화폐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의회 발의안 채택

### 3. 연구 결과

#### 1) 마을은행 설립구상

##### ▶ 마을은행의 목적

- 현 화폐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주권화폐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마을규모의 경제협동체를 구상한다.
- 마을은행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은행이 아니라 지역주민 소유의 비영리은행을 목적으로 한다.

##### ▶ 고려사항

- 부채에 기반하지 않는, 이자 없는 화폐를 발행하고 취급하는 마을자치은행을 표방한다.
- 마을은행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역외거래를 위해 다른 화폐와 호환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을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고려한다.
- 초기 재원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를 통해 조달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 중개 수수료를 활용한다.
-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은 국내외 유관기관단체와의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화 한다.
- 현재의 <경제협동체 도토리회>를 주권화폐발행시스템을 적용한 마을은행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운다.
- <지역화폐거래소 옆>은 적당한 시기에 마을은행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2) 마을은행 네트워크 구상

##### ▶ 네트워크의 목적

- 독립적인 마을은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마을은행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은행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 ▶ 네트워크의 설립

- 지역별로 마을은행 연합회를 구성, 마을은행들의 중앙은행인 <지역자치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안전망을 강화한다.
- 더 나아가, 지역자치은행의 연합회를 구성하여 광역지자체 또는 국가와 협력하여 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 네트워크의 미래전망

- 한국에서 주권화폐시스템으로 이행한다면, 그래서 한국은행과 민간은행의 역할이 달라진다면, 지금의 일반 민간은행이나 지역별 마을은행네트워크 주체는 거의 비슷하게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보통은행이 될 것이다. 다만, 얼마나 수익을 추구하는지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 한국은행은 일반 민간은행보다는 <지역자치은행>이나 <마을은행>과 상호협력의 기회가 아주 많을 것이며, 마을은행 네트워크로서의 <지역자치은행>은 지역자율성을 지닌 국가의 공공은행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 4. 향후 과제

### 1) 공론화

- 현행 화폐시스템의 불안전성과 주권화폐시스템의 장점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조사활동과 토론회, 학습강좌개설도 기획해볼 수 있다. 특히, 수많은 자료와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Positive Money관계자를 충남연구원과 도토리회 주최로 초청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제교류행사를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2) 주체발굴

- 화폐시스템 개혁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조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 방송언론계, 학계, 출판계, 금융계, 공공기관 등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 화폐시스템 개혁을 정치의제화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 3) 관련법 제정 및 정비

- 마을은행의 설립이 좀 더 수월하도록 조례제정이나 은행법, 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법 등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 4) 기본소득 연계방안

- 마을은행 지역화폐를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로 발행하여 이를 기본소득 지급에 활용할 수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 5) 국제연대

-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해서 활발한 상호협력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블록체인기술도 화폐민주화의 동기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나은 주권화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국제연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The macroeconomics of central bank issued digital currencies(John Barrdear and Michael Kumhof)
2.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Michael McLeay, Amar Radia and Ryland Thomas of the Bank's Monetary Analysis Directorate)
3. Monetary Reform – A better monetary system for Iceland, Edition 1.0 March 2015 Reykjavik – ICELAND(FROSTI SIGURJONSSON)
4. 100%-reserve versus single-circuit sovereign money(Joseph Huber)
5. SOVEREIGN MONEY An Introduction(Ben Dyson, Graham Hodgson & Frank van Lerven)
6. The Sovereign Money Initiative in witzerland(Mark jöob)
7. Our Money Towards a new monetary system(Frans Doorman)
8. Modern Money and Sovereign Currency(Joseph Huber)
9. DEMOCRATIC MONEY AND CAPITAL FOR THE COMMONS: Strategies for Transforming Neoliberal Finance Through Commons-Based Alternatives(David Bollier and Pat Conaty)
10. PUBLIC ATTITUDES TO BANKING A student consultancy project(ESCP Europe for The Cobden Centre, June 2010)
11. The truth is out: money is just an IOU, and the banks are rolling in it(David Graeber)
12. The Future of Money(Mary Mellor, 2010)
13. 부채, 그 첫 5000년(데이비드 그레이버, 2011)
14. 부채통치(마우리치오 랏자라토, 2018)
15.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2015)
16. Presenting the American Monetary Act (Stephen Zarlenga July 18, 2010)
17. [장홍배, 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한겨레, 2월 1일자 칼럼)
18. Sovereign Money in Critical Context Explaining monetary reform by using typical misunderstandings(Joseph Huber)
19. Public Money, Debt Money and Blockchain-based Money Classied EPM as Money of the Futures JFRC Working Paper No. 01-2017(Kaoru Yamaguchi, Ph.D. Yokei Yamaguchi, M.Sc., M.Phil)
20. BANKING VS DEMOCRACY(Andrew Jackson and Ben Dyson)
21. Is Monetary Financing Inflationary? A Case Study of the Canadian Economy, 1935 – 75(Josh Ryan-Collins, NEF 2015)
22.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 –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모색(부산발전연구원, 오동하 2018)
23. Money Issuance\_Alternative Monetary Systems\_A report commissioned by the Icelandic Prime Minister's Office(KPMG)

## 5.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인건비	15만원 x 6개월	900,000
재료구입비	도서구입	400,000
복사비	a4 용지/토너교체	150,000
식비 및 다과비	1만원 x 5명	50,000
합		1,500,000

# 04

[2017 하반기 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성과보고회]

## 주치의사업과 주민 건강 지킴을 위한 주치의건강수첩개발

---

이 훈 호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 주치의사업과 주민 건강 지킴을 위한 주치의건강수첩개발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필요성)

-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정보는 본인도, 보호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응급한 경우나 기억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기존에 먹던 약이나 검사 질병 정보가 없고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응급실 의사도 처음 진료에서 정확한 정보없이 진행하게 된다.
- 주치의나 주민 건강 지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계이다. 지속적인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교류로 생기지만, 이 교류의 매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에 손쉽게 이용하고, 효과가 높은 주치의 건강수첩을 만들면 공공보건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건강수첩이나 혈압수첩은 이전에 다른 보건소(어르신건강수첩, 수원시보건소2015)등에서 만들거나, 의료기관, 의료협동조합에서도 만든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첩에 내용을 읽어 보세요’,하고 전달해주는 정도이고, 기입할 내용이 많아 번거롭기도 하다. 만들기는 하지만 이용에 어려웠다. 만드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환자와 의료진)이 달라 실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방법을 고민하고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실제 진료 현장과 병의원에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을 찾으려한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가 협동으로 조직된 의료협동조합(생협)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

### 2) 연구목적

- 1) 사용이 편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의미 있는 노인주치의건강수첩을 만든다.
- 2) 노인주치의건강수첩의 효용을 확인하고 이후 건강수첩활용도 높일 방안을 만든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

- 현장에서 이용방안연구 및 건강수첩 제작  
이용자와 의료진, 연구자가 모여 1)주치의건강수첩을 제작한다.  
2)진료현장과 일상에서 이용방안을 정한다.
- 생협의원 진료현장에서 사용한다.
-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확인/진료현장에서 편리함(업무 가중 등)확인한다. 실제 이용에 따른 사례를 정리한다.

## 2. 연구 내용

(1) 의료진과 이용자의 편의와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건강수첩 제작 및 활용

가) 형태

포켓수첩	예방접종수첩 형태
사례) 건강보험공단 금연수첩, 당뇨, 혈압수첩	사례) 예방접종수첩, 기존만성질환수첩(보건소 등)
편의, 휴대성, 외관상 고급스러움, 충분한 속지	글씨가 크다, 내부 디자인이 가능
비용높다. 내용 구성에 충분한 시간필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기 불편

: 주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수첩형태로 제작함. 젊은 사람들은 어플 이용도 고려함. 참고1)

나) 내용

- 내 몸 기록하기 - 진료정보, 생활습관, 마음건강, 노인질환, 생활기능, 주치의편지
- 통증기록장 - 차트, 그림
- 건강정보 건강검진 - 혈액검사 및 주요 검사결과정리
- 기타검진 기록장
- 성인 예방접종 기록장
- 중요처방내용기록
- 건강체크와 실천체크
- 건강관리법 통증, 운동, 영양, 휴식, 당뇨관리, 심혈관, 마음건강, 건강검진, 흡연음주
- 나를 위한 건강 안내서
- 사전의료의향서
- 지역복지단체, 돌봄기관 안내

다) 11월 29일 1차분 제작(견적문제로 2주정도 미뤄짐)

: 참고 2, 3)

#### 라) 대상자선정

- 1) 주치의 건강 수첩 안내문 제작
- 2) 진료에서 필요한 경우 권유 및 제공  
새롭게 발견된 건강문제(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건강 검진 등 개인 건강 기록을 상담 받은 경우  
가정에서 혈압, 당뇨 등 체크하는 경우  
혈압, 당뇨가 조절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는 노인

#### (2) 활용내용

- 1) 진료 중 주치의 수첩을 통한 건강관리 설명드리고 안내
- 2) 당일 검사결과 기록, 검진기록 가져온 경우 기입 후 제공
- 3) 약 처방시 약처방 내용 붙임->처방내용 변경시 붙임
- 4) 진료시 건강정보를 이용해 설명
- 5) 건강관리명단에 기재
  - 매주 주치의회의를 통해서 전화, 문자 등으로 방문, 현재관리상황확인, 검사예정 안내를 시행
- 6) 집에서 건강관리(혈압, 당뇨)를 측정하는 경우/ 평소 당뇨 수첩이용하는 분
  - 건강수첩을 제공해서 혈당, 혈압을 측정 기록
- 7) 혈압, 당뇨가 조절되지 않은 경우
  - 혈압계, 당뇨측정기 대여 후 기록 권유
- 8) 수첩에 기록한 건강정보를 진료도구로 이용
  - 매회 방문시 건강정보 중 한 가지씩(한 회차씩) 교육에 활용  
〈별첨자료〉 주치의 건강수첩

### 3. 연구 결과

#### 〈결과요약〉

- 짧은 기간 동안 주치의 수첩제작부터 이용에 대한 평가까지 진행하는 연구이다 보니 전반적인 주치의 사업진행과 수첩 활용에 대한 이해는 높아졌고 중심에 두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주치의는 긴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신뢰와 개인건강정보를 쌓아가는 관계이다 보니 주

치의활동이나 수첩의 효용을 평가하기엔 부족했다. 이에 사례와 수첩내용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주로 기술하려 한다.

#### 〈전반적인 연구 목적에 따른 결과〉

총 관리 인원	조절되지 않은 경우	처음 발견	검진 후 관리	만성관리
29명	9	7	2	11

#### \* 사례

- 김 OO : 11월 처음 혈압, 당뇨 위험 없음, 전립선관련 불편, 혈압관리법 배우기,  
12월 혈액검사 결과 → 기록하며 지속적 혈압관리에 이용함
- 이 OO : 최근 조절되지 않는 혈압으로 혈압계 구입하여 집에서 측정하며 관리함.  
“아침 혈압만 지속적으로 높다. 약 복용 후 오히려 높다” 호소, 약 증량 처방  
→ 지속적인 기록으로 상태를 체크하여 적당량을 확인함
- 신 OO : 최근 높아진 당뇨와 바뀐 약물로 노트 활용

1) 사용이 편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의미 있는 노인주치의건강수첩을 만든다.

#### 〈실제현장에서 의미 있었는가?〉

가장 어려운 것은 주치의 사업 참여자 확인이다. 익숙치 않다보니 대상자, 접수과정, 진료과정에서 모두 있는 경우가 있었다. 프로그램과 연동 등의 방법은 있으나 접수와 진료 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도록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치의 수첩이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알고, 함께 관리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주치의 카드나 수첩으로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에 언급한 몇 개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효과가 있었다. 주치의 수첩자체의 효과보다는 주치의수첩을 제공하거나, 주치의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진행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리 환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 회의시간에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었다. 회의를 건너 뛴 주에 최근 발생한 당뇨환자 중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관찰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다. 이후 재방문하여 관리하였다. 최근 발견되거나 조절되지 않은 경우는 추적관찰을 놓치는 경우(본인의 무관심, 일상의 바쁨)는 중대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본 연구가 ‘건강수첩’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환자의 진료내용과 관리계획을 주치의 담당간호사가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수첩이



이러한 관리계획을 담고 있고, 이를 활용해 담당간호사가 교육 및 상담을 해야 한다. 중요내용 이외의 사항은 정기회의를 통해서 관련 역량을 증대해 나가야한다.

당뇨	3개월에 한번 혈액검사를 한다. 1년에 한번 합병증 검사를 한다.	처음 발견한 질환에 대한 대응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 대한 체크리스트 생활 습관 변화 상담
고혈압	1년에 한번 혈액검사 확인	상동
고지혈증	정기적인 혈액검사 확인	상동

주치의 수첩의 기록량이 많기 때문에 매회 5분정도 안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한다. 예를 들어 매회차 방문시 점검할 것 - 상담할 것 형태로 기록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하고 기록한다. 의사의 경우 차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팅후 다시 수첩에 적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차팅을 주치의 활동과 바로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수첩에 미리 내용을 담고 있어 체크나 밑줄등으로 강조만 할 수 있도록 수첩내용을 자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검진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담당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다. 단, 건강검진에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서 설명하는 것은 담당의사 역할이기 때문에 검진 후 멘트를 달수 있도록 한다. 주요 결과에 대한 정상수치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한다.

주치의 수첩은 전반적인 상태를 기록하는 과정과 매번 방문시 변화를 기록하는 과정, 상담을 하면서 활용하는 과정이 있다. 기존 고혈압 당뇨수첩처럼 매번 방문시 변화와 상담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전반적인 상태 기록이나 검진 결과 기록은 어려움이 있다. 주치의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주치의 담당 간호사가 전반적인 상태를 예진하는 방식을 할 수 있으나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전반적인 기록방식보다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스크리닝하는 정도로 만들고 진료에서 코멘트를 다는 방식도 가능하다.

수첩을 매번 갖고 다니는 경우와 수첩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와 일정기간(2년) 기록 후 드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매번 휴대하는 분은 초기에 기록을 하고 다음 방문 시 드리거나 보관해야 한다. 전반적인 사항은 한번만 기록하도록 했지만, 시간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다(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노인질환, 기능평가). 매번 방문시 변화를 기록하는 부분이나 집에서 측정하는 경우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의사의 상담내용은 일주일 단위정도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수첩의 단기효과〉

처음 발견된 질환,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에 기록하고 진료에 참고함으로 도움을 받았다.

사례) 최근 조정되지 않은 혈압의 경우 진료시에는 혈압이 유지되나, 집에서 혈압을 잴 때만 높다하여 기록을 참고하고 방문하여 혈압을 조사함으로 약을 증량하였고 안정되었다.

혈압약을 먹고 나면 오히려 혈압이 높아진다는 호소를 하였으나 가정혈압을 측정함으로 혈압약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었다.

현재 드시는 약, 약이 바뀌는 경우도 기록하고 참고하도록 하였으나 지역노인의 경우 기억력이 감소한 경우가 많고 글자, 숫자 등 문자에 익숙치 않아서 단기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수첩을 매개로 하지만, 노인주치의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대상자를 잘 파악하고 있는 팀이라 생각된다. 문자를 보는 것도 익숙치 않아 전화를 주로 사용해야하고, 건강문제로 이동이 어려워진 경우는 방문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팀, 전담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반대로 활동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문자나 메신저, 어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인 접근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수첩에서 편리성과 효과의 두 바퀴가 모두 잘 굴러야함을 확인하였다. 정리의 번거로움이나 시간의 촉박함으로 정리가 부족해지면 효과가 감소했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기록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더 떨어졌다.

노인의 경우 기억의 문제와 익숙하지 않으므로 먼저 보관하고 일정 기간 (2년)이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의 기능은 크게 확인되지 못했다.

- ① 기록공유의 기능 - 타 기관 이용시 편의, 보호자의 질병이해
- ② 중요정보전달의 기능 - 연명치료, 심폐소생술, 병원연락처

앞의 활용도와 기능을 보강한 건강수첩 중간 수정본(디자인前) 구상(별첨)

현재 수첩을 연구내용에 따른 활용을 진행한 후 다음 건강수첩제작에 활용

### 〈 건강수첩을 활용한 진료 흐름도 〉

주치의 수첩이나 카드로 진료실 접수 → 접수에서 혈압, 당뇨 등 주요정보 기록 → 환자가 진료할 때 제공 → 건강수첩을 중심으로 진료 → 중점관리여부 확인 → 건강상태 체크 및 건강 상담 → 대상자에게 정리 후 제공 → 주1회 중점관리대상회의의 진행

## 〈결과 정리〉

- 1) 건강수첩의 활용을 위해서는 편의와 효용이 모두 중요하다.
- 2) 주치의 관리자 확인과정의 번거로움 해결이 필요하다. 주치의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수첩이나 주치의 카드를 활용해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 3) 진료에서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건강수첩을 활용한 5분진료’를 이용하여 주치의 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도록 수첩 제작이 필요하다. 이것은 주치의 참여자의 만족도를 함께 올릴 수 있다.
- 4) 노인과 사회적 약자의 주치의를 위해서는 팀으로서 접근하여 대면이나 전화 등을 활용한 소통이 필요하다.
- 5) 주치의사업팀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집단을 확인하는 것은, 이후 다른 건강사업에서 중요대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건의료팀에서 꼭 필요한 회의다.

## 4. 향후 과제

- 1) 긴 시간 개선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고립된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와 같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지원책(예를 들어 방문간호)이 필요하다.
- 3) 현 수첩을 중심으로 추가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첩에 붙임을 통해 활용도를 높임
- 4) 주치의 사업팀은 최근 발견한 경우, 상황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집중하고 진료실에서는 주치의 수첩으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하는 두가지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둔다.

## 〈참고문헌〉

참고1) 현직개원의 건강관리 가능한 ‘건강수첩어플개발’ 의협신문 201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56>

참고2) 어르신건강지킴이 복약수첩 2016.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참고3) 만성병수첩 안산의료생협 구글검색

## 5.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회의비(자문비)	자문 및 회의 (400,000)	400,000
재료구입비	롤프린터구입 (384,000) 인쇄비 (630,000)	1,014,000
여비(현장답사비)		
복사비		
식비 및 다과비	4 × 회	86,000
합		1,500,000





# 05

[2017 하반기 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성과보고회]

## 나와 환경을 살리는 면생리대

---

이 정 숙 (풀담문화공동체협동조합)

## 나와 환경을 살리는 면 생리대 모임 성과 보고서

### 1. 연구모임 개요.

연구 모임명	나와 환경을 살리는 면 생리대			
연구모임 목적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면 생리대를 개발하고 면 생리대의 단점을 보완하여 일회용 생리대의 편의성을 대체할 만한 가치를 창출한다.			
연구모임 결성일	2017년 3월 7일			
연구모임 운영기간	2017년 9월 1일 ~ 2018년 2월 28일			
연구모임 구성원 수	5명			
연구모임 대표자 (책임)	이름	이정숙	핸드폰	
	소속 (직업)		e-Mail	

### 2. 지원사업 활동 목적(지원금에 대한 사용 목적)

- 시판 중인 다양한 대안 생리대를 체험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 생리컵, 면 생리대, 천연 해면 등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으로 판매되는 다회용품을 비교 체험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한다.
-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면 생리대를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무형광 용, 유기농 면, 소창, 일반 순면, 타올지 등 다양한 친환경 원단과 패턴으로 제작해 사용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낸다.

### 3. 지원사업 주요 활동 내용

#### 1) 월례 모임

□ 총 모임 건수 : 4회(9월~12월)

□ 목적 및 회의 주제

-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한다.
- 시판 중인 대안 생리대를 구입하고 체험해 본 결과를 토의한다.
- 다양한 면 생리대를 체험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 면 생리대 사용 후 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 면 생리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면 생리대를 연구한다.

### 4. 월별 활동 실적

#### 1) 2017년 9월



□ 활동 내용(월례모임)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북카페 산새
- 목적 :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정보를 공유한다. 생리컵과 면 생리대를 종류별로 알아본다. 구매할 생리컵과 유기농 면 생리대 결정 및 주문한다.
- 참석자 : 이정숙, 김태현, 서재영, 김세은, 이지현

\* 주요 활동 내용

-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으로 생리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구입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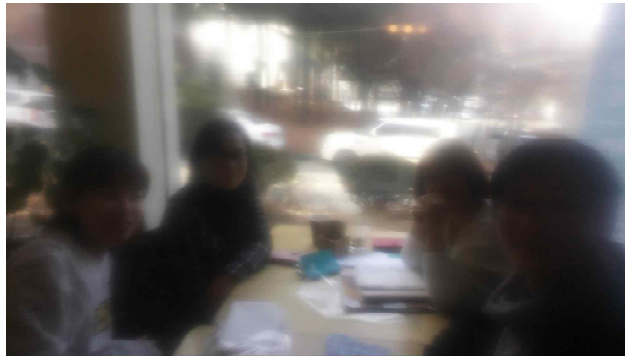


사용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 시판 중인 면 생리대 중 일체형과 분리형, 방수포의 유무 등 사양이 다른 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별첨1 :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

## 2) 2017년 10월



### □ 활동 내용(일례모임)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19일(목요일), 북카페 산새
- 목적 : 생리컵 사용 후기 및 장단점 비교
- 참석자 : 이정숙, 김태현, 서재영, 김세은

#### \* 주요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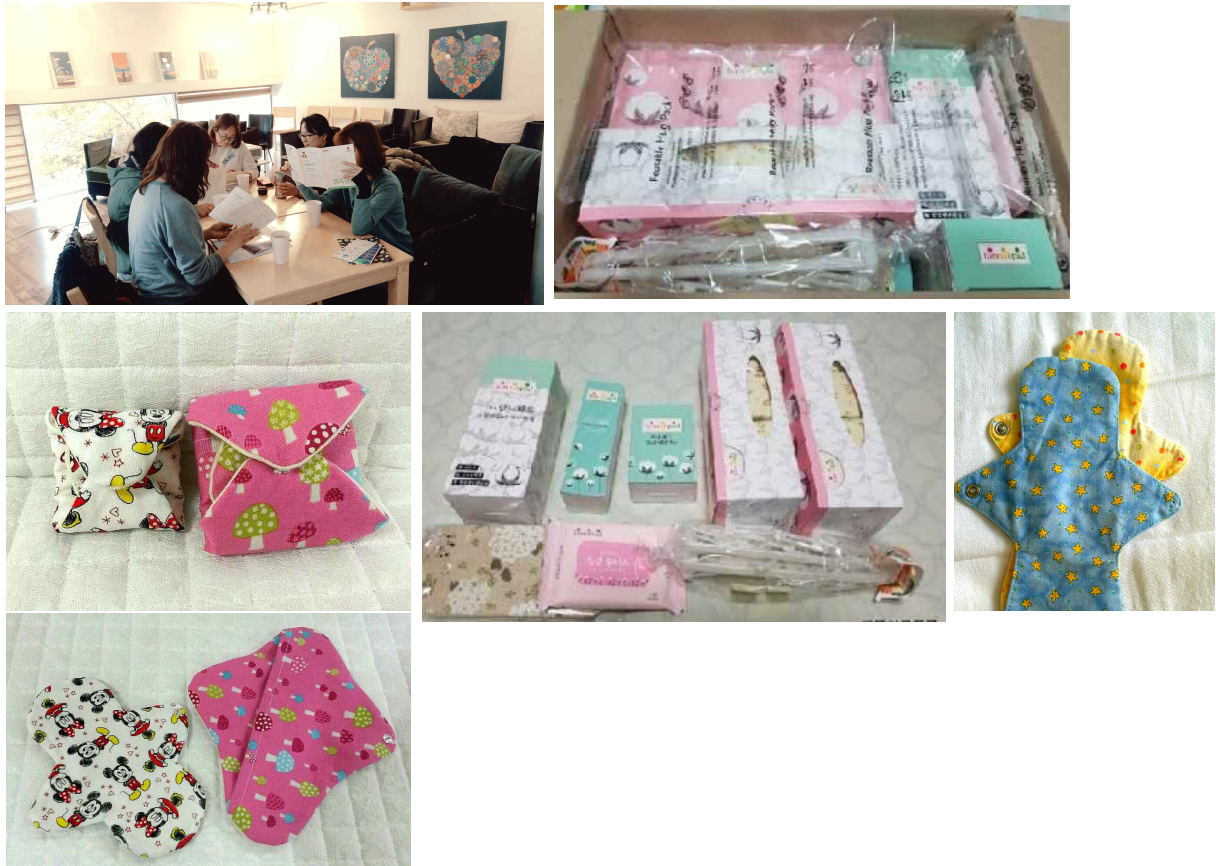
-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생리컵 사용 후기(국내 첫 시판 허가는 2017년 12월).

[후기 내용]

- ① 삽입과 교체가 어렵다. 삽입 후에도 느낌이 좋지 않다. 불편하다.  
(자궁경부가 짧은 사람들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개인차가 심하다.)
- ② 잘못 삽입하거나 구겨지면 생리혈이 샌다.
- ③ 휴대가 간편하고, 관리가 쉽다.

- ④ 교체시 생리혈을 쏟을 위험이 있다. 숙련될 때까지 힘들 것 같다.
- ⑤ 안전성이 의심된다.
- ⑥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고, 크기가 탐폰보다 커서 삽입과 교체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착용감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 3) 2017년 11월



#### □ 활동 내용(일례모임)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북카페 산새
- 목적 : 시판 중인 대안 생리대를 구입하고 체험해 본 결과를 토의한다.  
다양한 면 생리대를 체험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 참석자 : 이정숙, 김태현, 서재영, 김세은, 이지현

##### \* 주요 활동 내용

- 시판 중인 면생리대 체험 후 장단점을 비교

① 한살림과 자연드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면 생리대(방수포 없는 것)를 구입하여 사

용해 본 결과 착용감도 좋고, 편안하고 좋았으나 생리가 썰까봐 불안했다.

- ② 대량 생산하는 제품이다 보니 여밈 부분이 기계로 눌러 다는 가시도트라서 오래 사용하다 떨어지면 재사용이 어려울 것 같다.
- ③ 만들어 쓰는 생리대의 장점은 더 오래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필요에 따라 방수포를 넣어서 맞춤형으로 제작 가능하다.
- ④ 시판용 먼 생리대는 초기 구매금액이 비싸다.
- ⑤ 관리가 번거롭다. 핏물제거하고, 세탁하고, 널고, 말려서 보관하는 것까지 일회용에 비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야 한다.
- ⑥ 장마철이나 겨울철 바로 마르지 않아 개수가 많이 필요하다.
- ⑦ 가려움증과 짓무름이 없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 생리통이 약간 완화되었다.
- ⑧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일조했다는 기분이 든다.
- ⑨ 밤에 잘 때 썰까봐 두려웠으나 새지도 않고 의외로 흡수력이 좋다.
- ⑩ 일체형이 사용하기는 쉬우나 안에까지 잘 세탁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 ⑪ 분리형이 귀찮기는 하지만 생리양에 따라 속지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다.

#### 4) 2017년 12월



□ 활동 내용(월례모임)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1일(목요일), 카페 모모(재봉틀 있는 카페)
- 목적 : 면 생리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면 생리대를 연구한다.
- 참석자 : 이정숙, 김태현, 서재영, 김세은

\* 주요 활동 내용

-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생리대를 제작했다.
- ① 활동량이 많은 사람, 생리량이 많은 사람, 생리가 썰까봐 불안한 사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등은 방수포를 넣어서 만들고, 대체로 집에서 생활하는 전업 주부, 생리량이 적은 사람들은 방수포 없이 만들었다.
- ② 피자매연대에서 무료 배포하는 중형, 대형 패턴을 이용해 분리형으로 제작했다. 대형의 선호도가 높아 대형을 많이 만들었다.
- ③ 속지는 흡수력이 가장 뛰어난 용으로 통일하고, 살에 닿는 원단은 소창, 무형광용, 순면, 유기농 원단 등 다양하게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
- ④ 방수포는 투습 가능하고 부드럽고 얇은 재질을 사용했으므로 완벽한 방수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생활방수 정도의 기능은 가능하다.
- ⑤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비교해 본 결과 생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체형이 편리하므로 소형과 팬티라이너 용도는 일체형으로 제작했다.

## [주요활동 총정리]

종류	장점	단점	비고
생리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하고 관리가 쉽다.</li> <li>· 옷 바깥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li> <li>·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에 따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li> <li>· 삽입 시 잘못해서 구겨지거나 모양이 잘 잡아주지 않으면 생리혈이 샌다.</li> </ul>	
면 생리대 (일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형보다 관리가 쉽다.</li> <li>· 착용감이 좋다.</li> <li>· 냄새가 나지 않는다.</li> <li>· 짓무름이 없다.</li> <li>· 통풍이 잘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이 번거롭다.</li> <li>· 두꺼워서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속까지 완전히 마르지 않아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이 우려된다.</li> <li>· 생리혈 양에 따라 두께를 조절할 수 없다.</li> <li>· 생리혈이 샅까봐 걱정된다.</li> </ul>	
면 생리대 (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용감이 좋다.</li> <li>· 냄새가 나지 않는다.</li> <li>· 짓무르지 않는다.</li> <li>· 통풍이 잘 된다.</li> <li>· 생리혈 양에 따라 속지를 조절할 수 있다.</li> <li>· 위생적이다.</li> <li>· 계절 상관없이 건조가 빠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겉지와 속지로 분리되어 있어 일체형보다 관리가 번거롭다.</li> <li>· 세탁할 것이 많고 번거롭다.</li> <li>· 생리혈이 샅까봐 걱정된다.</li> </ul>	
면 생리대 (방수포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 생리대의 단점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다.</li> <li>· 활동이 많은 날이나 직장인들에게 적당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에는 답답할 것 같다.</li> <li>· 폭 삶을 수가 없다.</li> </ul>	
면 생리대 (방수포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자연친화적인 생리대다.</li> <li>· 통풍이 잘 되고 가장 냄새가 적다.</li> <li>· 착용감이 좋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체 시기를 놓치면 샌다.</li> <li>· 자주 갈아줘야 한다.</li> <li>· 생리대가 많이 필요하다.</li> </ul>	

## 5. 지원 사업 성과

- 한 해 우리나라에서만 버려지는 일회용 생리대는 23억 개나 된다고 한다. 또한 일회용품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의 건강한 신체도 지키는 면 생리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회원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으로는 안성성이 입증되지 않은 실리콘이나 라텍스 생리컵이 아니라 면 생리대만이 세탁을 통해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 체험 비교 분석표와 논의 되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친환경 동아리 모임, 초·중·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알리고, 면 생리대의 간단한 제작방법과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교육할 자료를 만들었다.

## 6. 향후 과제 또는 충남연구원에게 바라는 점

- 단체 소속이 아닌 일반인들이나 작은 동아리, 소모임에서 선한 의지를 갖고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 7.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비고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나컵(미국 FDA 승인 생리컵) 5인×45,000원×1개=225,000원</li> <li>· 한나패드(유기농면생리대)일주일 패키지 5인×136,900원=685,400원</li> <li>· 방수포, 유기농 면 원단, 무형광 용, 똑딱이 단추, 켈트실 = 125,000원</li> </ul>	1,035,400원	
복사비	자료 복사 및 패턴 복사, 코팅	7,700원	
식비 및 다과비	[다과] 9월) 5인×5,000원=25,000원 10월) 4인×5,000원=20,000원 11월) 5인×5,000원=25,000원 12월) 4인×5,000원=20,000원	90,000원	
합		1,133,100원	자부담 포함

## 【 나와 지구를 살리는 건강한 면 생리대 】

---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란 존재할 수 없다!

- 이덕희(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 유해성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200종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방출되었고, 이 중에는 벤젠, 스티렌 등 20종의 독성화합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벤젠은 발암성 1군 물질이다. 1회용 생리대에서 방출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관리 기준과 비교하면 수십 배 이상 높았고 500배까지 높은 제품도 있다. 그런데 면 생리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물 세탁하면 72%, 삶으면 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외음부의 피부는 침투성이 좋아 유해물질을 잘 흡수하는데 생리대는 계속 피부와 밀착되어 있고 갇혀있는 구조라 오염물질이 흡수되기 쉬운 환경이다. 때문에 내분비교란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1회용 생리대는 불임과 생리통을 포함한 많은 여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안생리대의 한 형태로 생리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천연고무인 라텍스 생리컵의 경우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방출될 수 있고 실리콘 생리컵의 경우 실록세인 방출 위험이 있다고 하니 일회용생리대의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안전성이 입증된 순면 생리대만이 1회용 생리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환경오염과 고비용

국내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1회용 생리대는 약23억 개, 주원료인 폴리에틸렌은 높은 온도에서 환경호르몬을 방출하며, 잘 썩지 않는 화합물질로 지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생활 연구원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1회용 생리대의 연 평균 구입비용이 12만1,666원이며, 1회용 생리대 사용 기간은 2~4시간인 반면 면 생리대의 사용 기간은 무려 3년 이상이나 된다.

## 면 생리대의 장점

### 1. 지구를 살린다.

- 일회용생리대 제작에 쓰이는 수많은 펄프(나무)를 절약할 수 있다.
- 땅에 묻혀 분해되려면 몇 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폴리에틸렌 사용을 줄일 수 있다.

### 2. 건강한 여성

- 생리 기간 중 불쾌한 냄새, 가려움증 등 피부트러블이 현저히 줄어든다.
- 생리통이 완화된다.
- 내분비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 3. 경제적

- 한 번의 구입으로 평균 3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10년 쓰는 사람도 있음).
- 일회용 생리대 1년치 구입비용도 안 되는 금액(7~10만원)으로 3년 이상 사용 가능.
-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면 생리대 구입 가격의 1/3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용 가능.

## Q & A

### Q 생리혈이 새진 않나요?

일회용 생리대처럼 샘방지선이나 이중 날개는 없지만, 똑딱단추로 고정된 날개가 있어서 옆으로 새는 걸 막아줘요. 게다가 용의 흡수력은 생각보다 뛰어난 편이에요. 생리혈 양이 가장 많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엔 안감을 넉넉히 넣고 방수천을 덧댄 생리대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자주 교체하면 좋아요.

### Q 냄새가 심하게 나진 않나요?

쓰고 난 일회용 생리대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는 순수한 생리혈 냄새가 아니랍니다. 일회용 생리대에 남아 있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생리혈이 합쳐져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예요. 순면으로 만든 면 생리대는 통기성이 좋아 생리혈을 빨리 증발시켜서 냄새가 훨씬 덜나지요.

### Q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나요?

사람마다 생리혈이나 민감한 정도가 다르므로, 사용하면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처음 사용한다면 적응이 필요하므로 일회용 생리대보다 자주 교체하는 게 좋아요. 생리혈 양이 많은 날엔 2~3시간마다, 그 다음날은 3~4시간 간격으로 교체하면 적당해요. 양이 적은 날은 4~5시간 간격으로 교체해도 충분하답니다.

- 「핸드메이드 생리대」 중에서

## 관리방법

① 먼저 찬물로 면 생리대에 묻은 얼룩을 행구어 냅니다.

\* 따뜻한 물, 혹은 뜨거운 물에 빨면 절대 안 됩니다. 피의 단백질 성분이 응고되어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② 웬만큼 얼룩이 빠지면 비누칠을 해서 찬물에 5~6시간 담가둡니다.

③ 세탁비누를 잘 묻혀 손으로 세탁하거나 세탁기를 이용해 빨입니다.

\* 면 생리대를 담가두는 뚜껑 달린 용기를 마련해두시면 좋습니다.

\* 세탁 후에도 얼룩이 약간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얼룩에 물을 적시고 세탁비누를 발라준 다음 비닐봉지에 넣고 봉지를 묶어둡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내서 손으로 간단히 비벼 빨고 행구면 얼룩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 면 생리대를 삶아 사용할 때는 비누칠을 해서 물에 살짝 씻은 뒤 2분간 삶습니다.

(오래 삶으면 면 생리대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비누칠을 한 후 위생 봉지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면 살균효과가 있습니다.

\* 삶기 어려운 제품은 소다를 이용해 세탁하면 표백효과가 있습니다.

\* 마지막 행군 물에 식초 한 방울을 넣어주면 살균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세탁 후 햇빛에 충분히 건조시키도록 합니다.

— 「핸드메이드 생리대」 중에서

## 간단한 세탁법

\* 교체하자마자 바로 행귀 핏물을 빼고 비누칠해서 베이킹소다를 풀어둔 통에 넣어둔다.

이렇게 생리가 끝날 때까지 통에 모아뒀다가 생리가 끝나면 속옷이나 수건과 함께 세탁기에 돌린다(여름에는 물이 썩을 수 있으니 하루 한번 물을 교체해준다).

\* 핏물을 제거 했는데도 얼룩이 남아 있을 때는 따뜻한 물에 과탄산소다를 풀고 담가 둔다. 생리 한 주기가 끝나 모두 모아 삶을 때도 과탄산소다를 넣고 삶으면 새것처럼 깨끗해진다.

---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 번거롭고 힘이 든다.

그래도 아파서 고통 받거나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는 수고로움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다.





# 06

[2017 하반기 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성과보고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역량 및 만족도조사

---

이 상 명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역량 및 만족도 조사 모임 성과 보고서

## 1. 연구모임 개요.

연구 모임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역량 및 만족도 조사			
연구모임 결성일	2017년 07월 12일			
연구모임 운영기간	2017년 9 월 1 일 ~ 2017년 2 월 28 일			
연구모임 참여자				
연구모임 대표자 (책임)	이름	이상명	핸드폰	
	소속 (직업)		e-Mail	

## 2. 지원사업 활동 목적(지원금에 대한 사용 목적)

- 학폭위 참여 학부모위원들의 역량 제고 지원방안 모색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 교육부에 학교폭력 예방법률의 학폭위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충남교육청에 학폭위 참여 학부모 위원들 지원방안 요구

## 3. 지원사업 주요 활동 내용

### 1) 월례 모임

- 총 모임 건수 : 5 회

□ 목적 및 회의 주제

연번	내용			
1	일시	2017.9.28 오후6시	장소	뜰향
	참가자	구자명,이운상,이장희,이행찬,이상명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폭위 문제점 도출</li> <li>○ 연구모임 운영 방향</li> <li>○ 차기 모임 날짜</li> </ul>		
2	일시	10.23 월 오후5시	장소	천안교육지원청 협의실
	참가자	함동우(장학사),이장희,이행찬,이상명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가안</li> <li>○ 차기 모임 날짜</li> </ul>		
3	일시	2017.11.21 오후6시	장소	굴친구
	참가자	구자명,이운상,이상명,이행찬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지 검토</li> <li>○ 11.30 학폭위원 토론회 준비사항 점검(주최:천안교육청)</li> <li>○ 차기 모임 날짜</li> </ul>		
4	일시	2017.12.12 오후5시	장소	천안교육지원청 협의회실
	참가자	함동우,이행찬,이상명,구자명,이장희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30 학폭위원 실태조사결과 분석</li> <li>- 첨부. 실태조사결과</li> <li>○ 질적조사를 위한 인터뷰 학폭위원 섭외(10명이내)</li> <li>○ 차기 모임 날짜</li> </ul>		
5	일시	2017.1.31 오후4시	장소	천안교육지원청 위센터 교육실
	참가자	함동우,이행찬,구자명,이상명,이장희,이영우,황임란(강사)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폭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세</li> <li>○ 학폭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li> <li>○ 학폭대책위 개선을 위한 방안</li> </ul>		

## 2) 강사초청 특강

□ 총 특강 : 1 건수

□ 목적 및 주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부모연수 개선을 위한 강좌
- 주제 : 인간관계 이해와 소통의 실제
- 강사 : 황임란 교수 (한남대 상담교육학과 겸임교수)

## 3) 현장답사

□ 현장 답사 : 6 건수

□ 목적 및 장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참여경험 인터뷰
- 두정고 2학년, 오성고 1학년, 오성고 3학년, 백석중 1학년, 두정고 교사1인, 오성고 교사 1인

## 4. 월별 활동 실적

### 1) 2017년 9월

□ 활동 내용(월례모임, 현장 답사, 특강 등)

○ 개요

- 일시 및 장소 : 9월 28일
- 목적 : 학폭위 문제점 도출 및 연구모임 목적 이해
- 참석자 : 구자명,이윤상,이장희,이행찬,이상명

○ 주요 활동 내용

- 1차 회의



## 2) 2017년 10월

### □ 활동 내용(일례모임, 현장 답사, 특강 등)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월 23일 , 천안교육지원청 협의회실
- 목적 : 연구방향 논의
- 참석자 : 함동우(장학사),이장희,이행찬,이상명

#### ○ 주요 활동 내용

- 2차 회의



## 3) 2017년 11월

### □ 활동 내용(일례모임, 현장 답사, 특강 등)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21일 , 천안NGO센터 (굴친구)
- 목적 : 설문지 기획 논의
- 참석자 : 구자명,이윤상,이상명,이행찬

#### ○ 주요 활동 내용

- 3차 회의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
- 목적 :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원 대상 설문지 배포
- 참석자 : 이장희,이상명,이행찬

#### ○ 주요 활동 내용

- 학폭위원 연수 참여자들에게 설문지 배포 (91명 수거함)





#### 4) 2017년 12월

##### □ 활동 내용(일례모임, 현장 답사, 특강 등)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월 2일 , 사무실
- 목적 : 설문지 결과 정리
- 참석자 : 이상명

###### ○ 주요 활동 내용

- 91명 설문지 결과 정리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월 12일 , 천안교육지원청 협의회실
- 목적 : 정기회의
- 참석자 : 함동우,이행찬,이상명,구자명,이장희

###### ○ 주요 활동 내용

- 4차 회의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월 26일 , 사무실
- 목적 : 학폭위원 인터뷰 (3인)
- 참석자 : 이행찬

###### ○ 주요 활동 내용

- 인터뷰 : 두정고, 오성고, 백석중 학부모

#### 4) 2018년 1월

##### □ 활동 내용(일례모임, 현장 답사, 특강 등)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월 31일 , 천안교육지원청 위센터 교육실
- 목적 : 연수 및 개선방안 모색
- 참석자 : 함동우,이행찬,구자명,이상명,이장희,이영우,황임란(강사)

###### ○ 주요 활동 내용

- 인간관계 소통에 대한 강좌 및 대안 토론



5) 2018년 2월

□ 활동 내용(월례모임, 현장 답사, 특강 등)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월 12일 , 사무실
- 목적 : 학폭위원 인터뷰
- 참석자 : 이행찬

○ 주요 활동 내용

- 인터뷰 : 두정고 ,오성고 교사 2인 및 오성고 학부모

## 5. 지원 사업 성과

□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한 법률적 미비사항 인식

- 교육부에서 개선안 마련중임 (기초위원회 신설 , 학부모위원 구성원수 하향, 학교폭력 사안별로 심의단위 재조정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부모위원의 역할의 문제점 인식

- 지역단위 기초위원회 신설,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학부모위원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제언

## 6. 향후 과제 또는 충남연구원에게 바라는 점

□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분쟁을 조정, 담당할 거버넌스 기능들에 대한 실태파악

□ 학교운영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넘어 회복적 생활교육 및 혁신교육을 추진 해 나갈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구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모델 연구

## 7.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회의비(자문비)	강사비×1 회	200,000
재료구입비	도서구입	81,900
여비(현장답사비)	인터뷰 6인*5만원, 설문지 결과정리 5만원	350,000
복사비	설문지인쇄(300원*100부), 자료집(88,500)	118,500
식비 및 다과비	회의 식비 5회	249,600
합		1,000,000

## <성과요약 보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만족도 조사 연구모임은 총 5차 회의와 1차 연수를 진행하였고, 2017년 11월 30일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학부모위원 연수 워크숍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천안지역 전체 607명 학부모위원(2017년 기준) 중 91명의 위원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고, 이중 90%는 여성이었으며, 40대가 65%이다.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이 55%,중학교 25%, 고등학교 20% 이다.

관련 법령의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에 대해서는 63.7%가 긍정답변을 하였고,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52.7%가 긍정 응답하였다. 시군 단위로 구성하게 돼 있는 지역대책협의회에 대해서는 61%가 알고 있었으나, 지원 경험에 대해서는 83%가 부정 응답을 보여, 지역대책협의회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학부모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현재 연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60% 정도 였으나, 분기마다 전문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에 달해서 현행 1~2회 연수가 최소한 4~5회 연수로 개선되어야 한다.

자치위 결정 후 학생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54%가 부정 견해를 보였는데, 학생당사자들과 가해보호자/가해학생에 대해 예방 차원의 집중 교육은 부족한 걸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위원들은 반복되는 학생에게 74%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생활교육이 부족한 채로 학교라는 물리적인 환경의 특성상 학교폭력이 반복돼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학교 안밖의 상담과 지원이 병행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심의는 현행 자치위가 결정하게 돼 있으나, 이때문에 담임이나 담당교사의 조정 역량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가 사안심의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30%만 긍정 답변을 보이고 있어, 자치위의 사안심의 과정에 피로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45%가 대화,인권,민주주의 같은 생활교육이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학생들의 체험활동(11%),교실당 학생수 감소(10%),과다경쟁 입시교육 폐지(11%)도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자치위가 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20%가 나왔다. 지금의 입시위주의 성적 관리에서 공교육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골고루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학부모단체의 구성원들로 진행한 연구모임은 크게 4가지로 제안 의견을 모았다.

1. 학부모위원 연수 강화
  - 학부모위원들의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
  - 학부모위원들의 워크숍 지원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기관 마련
  - 예방, 상담 및 사안심의를 위한 전문기구 마련 (기존 시스템이 있으나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 학부모위원들이 지역대책협의회 (또는 유사한 지역단위 조직)에 역량 제공
  - 현행 자치위의 기능 조정 및 이에 걸맞는 이름 변경
3. 회복적 생활교육 도입과 학생상담 확대
  - 학교 및 지역 차원의 교육과 상담 기능 확대
  - 전면적인 생활교육과 갈등 치유를 위한 회복적 환경 제공
4. 혁신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학교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 학교 민주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와 협력
  - 입시제도 개선

# 07

[2017 하반기 시민사회 지원 작은 연구사업 성과보고회]

**우리 동네 빗물저장소 연구모임**  
**: 지역에 맞는 빗물 저장 및 활용 계획 수립 연구모임**

---

신 은 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우리동네 빗물저장소 연구모임 성과 보고서

### 1. 연구모임 개요

연구모임명	우리동네 빗물저장소 연구모임			
연구모임 목적	지역에 맞는 빗물 저장 및 활용 계획 연구			
연구모임 결성일	2017년 4월 1일			
연구모임 운영기간	2017년 9월 1일 ~ 2018년 2월 28일			
연구모임 구성원 수	6 명			
연구모임 대표자 (책임)	이름	신 은 미	핸드폰	
	소속 (직업)		e-Mail	

### 2. 지원사업 활동 목적(지원금에 대한 사용 목적)

- 빗물 활용에 대한 학습 및 안내
  - 빗물 및 저장소 관련 자체 학습모임 진행
  -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빗물의 중요성 및 활용방안 학습
  - 빗물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 지역언론을 통해 빗물저장소 및 본 연구모임활동 소개 (기사 별첨)
- 지역 특성에 맞는 빗물저장소 모델 수립 및 적용
  - 빗물 활용 관련 지역 수요 파악
  - 빗물저장소 설치 및 홍보를 위한 지역현황조사

- 기존 설치사례 조사 및 사용자 의견 수렴
- 주택, 공공건물, 농업시설 등 각각의 수요에 맞는 빗물저장소 제안

#### □ 지역주민 주도 지역문제(물문제) 해결 및 생활기술 보급

- 빗물 활용을 위한 지역 내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빗물저장소 설치 워크숍 개최
- 빗물저장소 설치 의향이 있는 주민 대상 컨설팅
- 효율적인 빗물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

### 3. 지원사업 주요 활동 내용

#### 1) 월례 모임

- 총 모임 건수 : 7회
- 목적 및 회의 주제

#####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 환경홍보분과 회의

2017년 9월 15일 홍동면사무소

분과사업비 활용방안으로 빗물저장소 설치 확정

신은미 이창신 주정민 함동렬 임소형

##### -빗물저장소에 대한 자체학습 진행

2017년 10월 13일 홍성씨앗도서관

자료를 참고해 빗물저장소의 원리, 타 지역 사례 등 자체학습

신은미 박용석 신나영 김지영 권민희 황윤미



-빗물저장소 설치장소 논의 1

2017년 11월 10일 홍동면사무소

신은미 주정민 이창신 임소형 함동렬

면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장소 의논

-빗물저장소 설치장소 논의 2

2017년 11월 17일 홍동면사무소

신은미 주정민 이창신 임소형

면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장소 의논 : 마을활력소, 홍동파출소 결정

-빗물저장소 강연 기획회의

2018년 1월 17일 마을활력소

신은미 이창신 주정민 김지영 신나영

2월 중 한무영 교수 (서울대) 초청 강연회 개최 기획

-빗물저장소 설치 워크숍 기획

2018년 2월 28일 마을활력소

신은미 주정민 박용석 정해일

빗물저장소 설치 워크숍 일정 및 프로그램 기획

-빗물저장소 설치 워크숍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논의

2018년 3월 22일 홍동면사무소

신은미 박용석 이동근 정성운 이은희 조기현 이재환

서울대 빗물연구센터 내방, 현장 방문 컨설팅

빗물저장소 안내판, 물통 홍보그림 등 제안



홍동면사무소,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40여 명 참석



### 3) 현장답사

□ 현장 답사 : 2건

□ 목적 및 장소

-빗물저장소 시범설치 장소 확정을 위한 컨설팅 및 현장답사

11월 17일 빗물저장소 후보지 현장실사

신은미 주정민 이창신 박용석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홍동보건소, 마을활력소, 홍동파출소, 풀무신헌 등

-주민 대상 빗물저장소 설치 컨설팅

3월 18일 2개 농가 및 공공시설 2개소 대상

박용석 신은미 이동근 최인숙 이동호

(\*) 컨설팅 대상 : 채승병(구정리) 김창구(금평리) 공생공락(운월리) 홍동면사무소(운월리)

홍성아하생활기술협동조합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충남연구원

## 빗물저장소 컨설팅 쿠폰

2018년 2월 23일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 환경홍보분과 드림.





#### 4) 기타

##### □ 빗물저장소 설치주민 의견 수렴 인터뷰

-2월 13일(화) 장곡면 지정리 정영희 씨 인터뷰

모기 유충 관리방법, 빗물 활용법 등 소개

-3월 9일(금) 홍동면 금평리 이환의 씨 인터뷰

빗물통 규모가 커서(5톤) 관리가 어려움 토로.

실내-실외 연동 활용 제안, 농업용수 및 연못수로 활용 계획

## 4. 월별 활동 실적

### 1) 2017년 9월

○ 개요 :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 환경홍보분과 회의 (9월 15일 홍동면사무소)

○ 주요 활동 내용 : 분과사업비 활용방안으로 빗물저장소 설치 확정

### 2) 2017년 10월

○ 개요 : 빗물저장소에 대한 자체학습 진행 (10월 13일 홍성씨앗도서관)

○ 주요 활동 내용 : 빗물저장소의 원리, 타 지역 사례 공유, 참고도서 소개

### 3) 2017년 11월

○ 개요 : 빗물저장소 설치장소 논의 2회 (11월 10일, 17일 홍동면사무소)

○ 주요 활동 내용 : 지역 내 공공시설 검토, 설치장소 논의 및 확정

### 4) 2018년 1월

○ 개요 : 빗물저장소 강연 기획 (1월 17일 마을활력소)

○ 주요 활동 내용 : 빗물저장소 학습 및 홍보를 위한 강연 (한무영 확정)

### 5) 2018년 2월

○ 개요 : “빗물을 모아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무영 박사 초청 강연

○ 주요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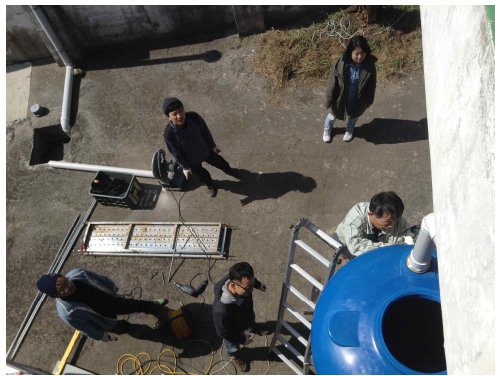
- 빗물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사례 강연

- 질의응답

- 빗물저장소 워크숍 안내

6) 2018년 3월

- 개요 : 빗물저장소 설치 워크숍 개최 및 평가, 앞으로의 계획 논의  
(3월 18일 마을활력소/홍동파출소, 3월 22일 홍동면사무소)
- 주요 활동 내용 : 빗물저장소 설치 방법 소개 및 현장강연  
워크숍 평가 및 제안사항 수렴, 앞으로의 계획 논의



## 5. 지원 사업 성과

- 지역주민들의 빗물 및 빗물저장소 공동학습
  - 강연, 워크숍 등을 통해 “물맹” 탈출, 빗물감수성 향상
  - 텃밭, 세탁, 변기 수조 연결 등 다양한 빗물 활용방안 공동
  - 빗물 활용과 더불어 절수에 대한 필요성, 방법 학습
- 지역 내 빗물저장소 설치 경험사례 조사 및 수요 파악
  - 강연 참석자 대부분이 빗물저장소 설치 의향을 밝힘.
  -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보완책 마련
  - 저장소 적정 용량, 이물질 제거 및 초기 빗물 관리 공유
  - 비닐하우스, 축사, 마을회관을 활용한 빗물저장소 연구 의견 수렴
- 지역 내 빗물저장소 관련 기술자 발굴 및 협업네트워크 구성
  - 예산홍성환경연합-아하생활기술협동조합-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 등
  - 빗물저장소 연구 및 안내 거점 마련
  - 빗물저장소 설치 기관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 생태건축 기술자들과의 협업 가능성 (건축 시 빗물저장소 고려)

## 6. 향후 과제 또는 충남연구원에게 바라는 점

- 홍성군 및 충남도에 공공건물을 활용한 빗물저장소 설치 적극 권장
- 소규모/가정용 작은 빗물저장소(1톤~3톤) 설치 지원사업 마련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닐하우스활용 빗물저장소 시범사업 실시
- 축사 지붕을 활용한 빗물저장소 적극 권장 및 지원
- 학교 빗물저장소 설치를 통한 빗물/수자원 교과과정 연계
- 지역주민 교육 및 컨설팅
- 민관이 함께 만드는 빗물마을 시범사업 실시
- 빗물저장소의 실효성 및 가뭄/홍수 대비 효과 연구

## 7.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강의비	빗물저장소 강연비 (한무영 교수) 300,000원 강연장소 대여비 (밝맑도서관) 100,000원 현수막 제작비 88,000원	488,000원
회의비(자문비)	빗물저장소 설치 장소 및 방법 컨설팅 공공건물 2개소 빗물저장소 설치 희망농가 컨설팅 2개 농가, 2개 공공건물	100,000원
	빗물저장소 워크숍 진행비	200,000원
여비	강사 숙박비	50,000원
식비 및 다과비	빗물저장소 회의 다과비 빗물저장소 설치 워크숍 식대	162,000원
합		1,000,000원

[빗물저장소 관련기사 별첨 1]

## 도수로나 댐으로 가뭄 극복? "빗물 저장이 답"

한무영 서울대 교수 "물을 잘못 쓰는 '물맹' 탈출해야"

18.02.24 15:43 | 최종 업데이트 18.02.24 15:43 | 이재환(fanterm5)



▲ 서울대 한무영 교수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밝맑도서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이재환

지난해 충청남도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강수량이 떨어져 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이 확산되고 있다. 가뭄 극복 대책은 충남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빗물의 비밀>의 저자인 서울대 한무영 교수가 지난 23일 충남 홍성군 밝맑도서관에서 강연을 열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매년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 사람들은 문맹이 아닌 '물맹'일지도 모른다.

한 교수는 충남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언급 한 뒤 "물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물공급을 늘리거나 물을 덜 쓰는 방법이 있다"라며 "도수로나 댐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을 아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물관리 강국이다. 마을 마다 기본적으로 연못이 갖춰져 있었다. 게다가 논이 많아 빗물의 자동 저장고가 되기도 했다. 논에 별도로 마련된 둠벙도 빗물 저장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 교수는 "빗물은 받아서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라며 "해수 담수화 보다는 빗물을 잘 받아 놓고 쓰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라고 말했다. 빗물을 적절히 이



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 버리는 '흙통' 다시 봐야

한 교수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 흙통을 다시 봐야 한다"라며 "흙통은 1년에 가장 깨끗한 물 100톤을 생산하는 빗물 저금통"이라고 말했다. 흙통을 통해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텃밭 농사나 변기용 물로 사용하면 상당량의 수돗물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기를 통해 허투로 새 나가는 물의 양도 만만치가 않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로 40cm, 세로 25cm의 변기는 1회당 12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변기를 하루에 여섯 번만 사용해도 72리터의 물이 소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빗물 저장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절수"라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빗물을 저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빗물을 고려하지 않은 수자원 계획은 진정한 수자원 계획이 아니다"라며 빗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빗물저장소 관련기사 별첨 2]

## 가뭄 극복의 대안? 빗물 저장 기술이 해답

### 홍동마을활력소에도 빗물 저장소 설치

18.03.19 07:03 | 최종 업데이트 18.03.20 07:07 | 이재환(fanterm5)

가뭄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는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해 사용하는 것이다. 지붕이나 건물 옥상과 연결된 배수관 끝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하면 두고두고 빗물을 활용할 수 있다. 빗물 저장소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빗물 저장소만 제대로 설치해도 텃밭 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쓰임새가 있다. 빗물 저장소가 가뭄 극복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아하생활기술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홍동 마을활력소에서 빗물저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 이재환

지난 17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마을활력소에도 빗물저장소가 설치됐다.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뜻을 모았다. 여기에 아하생활기술협동조합이 힘을 보탰다. 적정기술을 통해 갈고 닦은 기술력으로 시공을 맡은 것이다. 적정기술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널리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다.

빗물 저장소 설치와 관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간사는 "마을활력소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보자는 취지로 작업을 기획했다"며 실용성 뿐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을활력소의 옥상에서 외관으로 흐르는 배수관은 철재 구조물이다. 용접과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해 일반 PVC 배수관에 비해 작업 시간이 더 걸렸다. 조권영 홍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용접을 할 필요가 없는 PVC 배수관의 경우 작업이 좀 더 간단하다"고 전했다.

조 고문은 이어 "마을 활력소에서 설치된 저장 탱크는 용량이 1000리터로 비교적 작다"며 "3000리터 정도 크기의 빗물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모터까지 설치하면 밭에 물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000리터의 빗물 저장소도 병렬식으로 연결할 경우 용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빗물 저장소가 작을 경우 입구가 좁아 내부를 청소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빗물과 함께 흘러온 이물질이 빗물 저장소 안에 쌓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저장소 안을 주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장소 안에 이물질이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관 입구에 양파망이나 철조망을 설치해 이물질을 한 번 더 걸러내기도 한다. 어쨌든 빗물 저장소는 빗물을 받고 그것을 모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지혜로운 기술로 보인다.



▲ 같은 날 홍동파출소에도 빗물저장소가 설치되었다.

© 이재환

[빗물저장소 관련기사 별첨 3]

## 홍동 빗물저장소 설치 하루 만에 '가득'... "빗물로 부자 된 기분"

홍동 마을활력소에 설치된 1000리터의 빗물저장소, 하루 만에 빗물로 꽉 차

18.03.20 15:12 | 최종 업데이트 18.03.20 15:12 | 이재환(fanterm5)



▲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간사가 빗물저장소의 눈금을 바라 보고 있다. 빗물저장소 눈금은 1000리터를 가리키고 있다.

© 이재환

지난 17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동마을활력소에는 빗물저장소가 설치됐다. 빗물저장소는 지붕과 옥상에 내린 비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빗물 저장 탱크이다(관련 기사 : [가뭄 극복의 대안? 빗물 저장 기술이 해답](#)).

공교롭게도 홍동마을활력소에 빗물 저장소가 설치된 지 하루만인 지난 18일 충남 홍성에는 비가 내렸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것 같은데도 빗물저장소에 빗물이 가득 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가 왔길래 1000리터의 통이 하루 만에 가득 찬 것일까.

20일 오전 기상청에 문의해 홍성 지역의 강수량을 확인해 보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관측소의 측정 결과 18~19일 사이 홍성에 내린 비의 양은 15.6mm이다. 18일 6.3mm, 19일 9.3mm를 각각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는 하루에도 100~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한다. 그에 비하면 지난 18과 19일, 홍성에 내린 비의 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마을활력소에 설치한 빗물 저장소에는 빗물이 가득 찬 것이다.

이동근 홍동마을활력소 사무국장에 따르면 마을활력소의 면적은 168제곱미터이다. 평수로 치면 50평 정도로 일반 주택의 두 배쯤 된다. 마을활력소에 설치된 빗물저장소는 4개의 배수관에서 나오는 물을 한 곳에 받는 구조로 설치됐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덕분에 10mm 내외의 비에도 1000리터의 빗물 저장소가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간사는 "설치 다음 날 아침 비가 와서 아침 일찍 활력소에 나가 봤다"며 "아침 9시였는데도 벌써 빗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활력소 지붕은 경사가 있어 빗물을 모으기가 비교적 쉬운 구조"라며 "그럼에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빗물이 모여 뿌듯하다. 빗물 하나로도 부자가 된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그릇에 빗물저장소에서 나오는 빗물을 받고 있다.

© 이재환